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특집

세계가 '깜짝' 놀란 순천향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어느 여성 뉴요커의 가슴 '쫙' 핀 사연
미국 학술대회서 9년 연속 비디오상 수상하다
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힐링'

2014
통합 의료원보 Vol.24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7월의 시

글 | 이해인 사진 | 정의도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랗게 떨어지는 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 테지요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지닌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레일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사진설명 | 7월에 촬영한 치자꽃 무리

표지설명
무더운 여름을 맞아 환우들과
가족들이 순천향대학병원을
의미하는시원한 나무그늘에서
힐링을 하고 있다.
작가 · 미호

CONTENTS

통합 의료원보 **Vol.2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PHOTO ESSAY 7월의 시

Feature

02 special1 세계가 '깜짝' 놀란 순천향대병원 '응급의료센터'
06 special2 감동스토리_'나를 살린 순천향'
08 issue1 조주영 교수팀, 미국 소화기병 학술대회 9년 연속 교육 비디오상
10 issue2 부천병원, '행복정원 아카데미' 출범
12 focus1 천안병원 백의천사 봉사모임 '사랑회'
14 focus2 구미병원 고객만족 프로젝트 가동

Confidence

16 history 후학 · 지인들, 서석조 박사를 말하다 ❾
18 special family 천안병원 콜센터 락발라드 밴드 키보디스트 윤경희 씨
20 field 병원 24시, 부천병원 국제병동
24 doctor 전영준 구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26 new medicine1 폐암 진단 치료법
28 new medicine2 고관절 질환, 관절내시경 치료
30 new medicine3 '눈꺼풀 처짐' 치료법, '결막뮬러근절제술'
32 visit 동문탐방 – 최일석 순천향대의대 6회
34 news 순천향의대 동창회 소식
35 food 박태균 기자의 푸드&메드
36 knowledge1 불면증 치료법
37 knowledge2 여름철 조심해야 할 감염질환
38 knowledge3 '유방진공흡인생검술'
39 knowledge4 농업인 건강 안전 시스템

Communion

40 romance 거장들의 스캔들 ❿ 천상병 & 목순옥
42 essay 낮잠의 행복
44 korea restaurant 삼청각 SAMCHEONGGAK
46 travel 김진국 교수의 걷기 예찬
48 book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49 movie&stage 올 여름 더위 식혀줄 뮤지컬 무대 풍성

Communication

50 news 순천향 뉴스
55 schedule 진료 일정표
56 letter of thanks 감사 편지

〈순천향〉 애독자께 알림

〈순천향〉에서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애독자 여러분의 기고와 수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환자와 가족, 일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발행일 2014년 7월 18일 **발행인**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홍보팀 02-709-9120 **기획 편집 제작** 피앤플러스 백승주 02-2269-5689 **인쇄** 상림인쇄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무단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병원

지난 5월 10일 밤 11시경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한남동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순천향대병원에서 응급 심폐소생술을 성공적으로 받으면서 초기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수행한 순천향대병원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은 뇌혈관 질환과 함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혈관이 막힌 상태를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심장 근육의 괴사가 진행돼 치료해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때문에 순천향대병원의 초기 처치 덕분에 이 회장도 위험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순천향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들여다본다.

정리_ 편집부

세계가 '깜짝' 놀란 순천향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완벽한 초기대응…순천향 의술, 세계가 '깜짝'

구미병원

서울병원 응급환자 위한 최적의 시스템, 생존율 업(Up)

응급의학전문의 24시간 상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수행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인근의 한남동과 이태원에는 고령의 재벌가 창업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평소에도 이들의 방문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한남대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투신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도 많이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마침 올해로 개원 40주년을 맞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지난 4월 응급

환자를 위한 최적의 체계를 갖춘 응급의료센터를 새로 선보였다.

공간확장은 물론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공간배치와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줄이고,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응급환자 전용 출입구를 만든 것. 본관 건물 앞 주차장을 없애고 응급의료센터를 중앙으로 옮겨 출입문을 새롭게 만들었다. 새로 만든 출입문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들어오면 소아진찰실, 환자 분류 및 진찰실, 처치실, 심폐소생술방(CPR룸)을 나란히 배치했다. 특히 심폐소생술방은 출입구를 들어서면 바로 보이게 배치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응급환자 전용 CT와 일반 X-레이도 응급환자 전용 촬영실을 센터 안에 설치해 5분 이내에 촬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이전부터 시행하던 체외순환보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저체온 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도 갖췄다.

공간을 크게 확장함에 따라 CPR실과 처치실도 별도로 갖춰 환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응급수술실과 소아 전용 진찰실도 제대로 마련했다. 진료구역과 관찰구역을 확연히 구분하도록 세 구역으로 나눴다.

천안병원

환자용 침상도 최신 고급형으로 바꿔 환자도 편안하고, 의료진도 이송이나 처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병상도 20개에서 28개로 늘려서 번잡함을 줄였다.

보호자 대기실도 넓히고 새롭게 꾸며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구역에서 혼잡을 초래했던 폐단을 없애고 조용하게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작지만 구급대원을 위한 휴게공간도 마련해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며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영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의학과장은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응급진료를 위해 시설과 장비, 시스템 모든 면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병원 골든타임 지켜 치료성과 극대화

중증환자를 위한 특별함…최상의 서비스 · 최고의 의료장비 · 세심한 배려

부천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중증환자를 위한 특별함이 있다.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의료장비의 시너지 효과가 우수한 치료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그 우수성이 정부기관의 각종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부천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09년 보건복지부 중증외상 특성화센터로 지정돼 중증외상 전담팀을 가동하며, 각종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들에 대한 전문적 외상 처치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위한 신속한 응급시술 시스템을 갖춰 신경외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등과 긴밀히 협진하고 있다. 그 결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와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 평가에서 각각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5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평가는 99.9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천병원

부천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투자를 아끼

'골든타임' 기적을 만든 사람들

건강을 위해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박래헌(남, 54세, 사진 중앙) 씨. 지난 2012년 4월 평소처럼 오후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에 119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이송으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박 씨는 심장이 떨리면서 심장수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의 송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심실세동 상태였다. 의료진들은 즉각 제세동기 처치를 실시했고, 박 씨의 심장은 멎고 뛰기를 3번 반복하더니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후 중환자실에서 약 2주간 저체온요법을 받은 후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만든 기적의 결과였다. 박래헌 씨는 현재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이 순간판단을 잘 내려주셔서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은인이에요. 이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저에게 '이용'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순천향에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지 않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구분한 후 중환구역, 소생실 등 구역을 나누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중증외상환자 전담팀이 수술을 결정하고 1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하는 등 골든타임을 지켜 환자에 대한 치료성과를 극대화한다.

근육혈관, 인대 등 연부조직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소생실에서 바로 수술을 받는다. 또한 중증외상 및 심정지 환자들을 위한 응급처치도 이곳에서 시행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환자를 위한 키즈클리닉도 마련돼 감염을 예방하고 안정된 치료환경을 제공한다.

천안병원 전국서 몰려든 환자로 연일 '북새통'

최고의 의술과 의료 환경…농약중독 · 심장마비 · 뇌졸중 치료 최고

평일에는 200여 명, 주말에는 300여 명의 응급환자들로 늘 북새통을 이루는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

여느 지방대학 병원들과는 달리 센터를 찾는 환자들의 지역분포가 꽤 넓어 이채롭다. 서울, 강원도는 물론 심지어 제주도에서 건너온 환자도 있다.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그들은 왜 머나먼 천안 병원까지 찾아오는 것일까? 그중 이유는 다름 아닌 최고의 의술과 차별화된 의료환경 때문이다.

Unique 1. 농약 등 독극물 중독 환자 치료

그 첫 번째 최고의 의술은 농약중독치료. 전국에서 한 해 평균 600여 명 중 의 농약중독 환자들이 찾아오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적처럼 생명을 되찾는다. 기적의 중심에는 신장내과 홍세용 교수의 농약중독연구소가 있다. 홍 교수의 농약중독연구소는 1990년대 초부터 범세계적인 이목을 천안으로 집중시켜 왔다. 맹독성 농약 그라목손(파라콰트)의 해독법을 찾아냈기 때문. 시중에 시판되는 모든 농약과 독성물질에 대한 분석을 마친 농약중독연구소의 진단, 치료능력은 세계 최고다. 연구소의 업적은 셀수도 없이 많다. 얼마 전에는 세계 최초로 중금속인 카드뮴 중독 치료법도 찾아냈다. 실시간 인터넷 자문도 십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연구소의 존재가치는 측정 불가할 만큼 거대하다. 농약중독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5층에 전용 중환자실(EICU)도 갖추고 있다.

Unique 2. 응급 심뇌혈관 질환 치료

두 번째로 뛰어난 의술은 바로 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분야. 서울병원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목숨을 건졌듯이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에도 완벽한 심장마비, 뇌졸중 치료 시스템이 쉼 없이 가동되고 있다.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은 환자라면 소중한 생명을 놓치는 법이 없다.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은 것은 물론 뛰어난 의료진, 그리고 시설과 장비들. 심뇌혈관치료 전문 교수들이 직접 불철주야 불침번을 서며, 최신형 혈관촬영기(Angiography)들을 이용해 막힌 혈관 개통술, 혈전용해제 투여 등 적확한 치료를 시행한다. 또 센터 내에는 최신설비를 갖춘 별도의 심폐소생

실이 마련되어 있고, 현존 CT 중 가장 빠르고 정밀한 특히 혈관 촬영에 매우 유용한 '256 슬라이스 CT'도 서울 이남 최초로 들여와 운용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뇌졸중 치료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의료기관'과 '5년 연속 1등급'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Unique 3. 소아응급의료센터

천안병원에는 소아 응급환자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2012년 1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소아전용 응급센터. 말 그대로 성인과 완벽하게 분리된 진료공간. 성인환자와 뒤섞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이나 소아환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직접 진료한다. 치료시설도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중환구역과 격리실 등을 갖춰 어떤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 이처럼 완벽한 응급진료 환경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알려져 KBS '생명최전선',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이밖에도 센터 혼잡을 줄이고 경증환자의 빠른 진료를 위해 신속진료실도 운영 중인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응급의료 서비스로 전국병원들의 벤치마킹 단골 대상이 되었다.

구미병원 재난 대비한 응급치료 시스템 구축

가장 절박한 순간, 최고의 팀이 생명을 지킨다

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일이 늘고 있다. 가장 절박한 순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 구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경북 중서부권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응급환자에게 발빠른 응급처치와 진료를 제공, 환자의 빠른 복귀를 돕고 있다.

2005년 유병대 교수를 주축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가 시작됐다. 2013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5명으로 충원되면서 구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간 3만 명 이상 센터를 찾고 있다. 의료진은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검사, 처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된다. 20개의 응급병상과 중환자를 위한 집중처치실, 중앙모니터 장비, 응급방사선촬영실, 응급MRI,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인터벤션, CABG, ANGIO 등 최첨단 장비와 의료기술을 동원한 치료

가 이뤄진다. 특히 심혈관과 뇌질환은 생사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에 빠른 판단과 협진이 중요하다.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의료진과 협진으로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고 혈관조영실과 수술실을 열어 심뇌혈관계 질환자를 위한 원스톱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차 진료로 급한 불을 끄면 이후 중증도에 따라 해당과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진다. 응급처치가 중요한 만큼 응급의학과는 교수별 전문진료로 다양한 응급상황과 질환에 대처하고 있다. 전덕호 교수는 심폐소생, 독사교상과 화상, 저체온, 잠수병 등 환경응급질환에 관심이 많으며 유병대 교수는 외상응급의학, 전문심장구조학, 독버섯 관련된 치료와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독버섯 복용이 많은 가을철 그 실력을 발휘한다. 이동하 교수 역시 전문심장구조학, 독성학, 외상응급의학이 전문분야이다. 오세광 교수는 농약, 약물 등의 중독과 중증외상을 치료하며 이제원 교수는 전문심폐소생술과 대량재해에 의한 응급처치를 주로 하고 있다.

특히 구미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 및 재해에 대비한 응급의료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2년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연이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환자 응급치료와 수습에 나섰으며 재난 입은 환자들의 2차 피해를 막으면서 빛을 발했다. 그 후 대한재난의학회 자문을 얻어 대량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재난에 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또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대응 팀이 구성되어 혼선 없이 응급치료 시스템이 가동된다. 매년 구미시청 재난과와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심폐소생 교육 실시, 이외 여러 기관에서 실습 위주의 CPR교육을 진행하며 '심폐소생술 5분의 기적'을 알리고 있다. 구미소방서 구급지도의사운영에 참여하여 소방대원을 상대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오목가슴 쫙 펴니, 주름진 인생이 쫙 펴졌어요"

오목가슴 뉴요커 심유라, 천안병원 이승진 교수가 "저를 살렸어요"

정리_ 편집부

"제 오목가슴이 정말 펴질 수 있나요?"

천안병원 흉부외과 오목가슴클리닉 이승진 교수를 처음 만나던 날, 심유라(25세, 여) 씨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2013년 7월 방영된 모 케이블 방송의 인생개조 프로그램의(렛미인3) 주인공, '오목가슴 뉴요커'다. 미국 뉴욕에 사는 그녀에게는 주걱턱, 비대칭의 얼굴만큼이나 오목가슴이 심했다. 그로 인해 구부정해진 체형이 엄청난 콤플렉스가 되어 짧지 않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오목가슴은 새가슴의 반대로 앞가슴 뼈가 안쪽으로 함몰되는 선천성 흉벽 기형. 동양인에게 흔하며, 1000명 중 1~3명 꼴로 발생한다. 심하게 함몰된 경우엔 가슴뼈가 폐나 심장 등 장기를 압박해 기능장애는 물론 운동기능도 떨어뜨리고, 호흡곤란과 척추측만증도 유발한다. 심하면 어려서 교정을 받지만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 체형이 그렇다고 오인하거나 그냥 지나치기 쉽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성장하면서 가슴(유방)이 발달해 함몰부위가 다소 감춰지기 때문에 자신이 오목가슴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당시 얼굴 미용 성형을 마친 그녀가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남은 일은 오목가슴을 해결하는 것. 방송국 제작진이 수소문에 나섰고, 결국 세계적인 오목가슴 교정수술 명의인 천안병원 흉부외과 이승진 교수를 찾았다. 2013년 6월 13일 드디어 그녀와의 첫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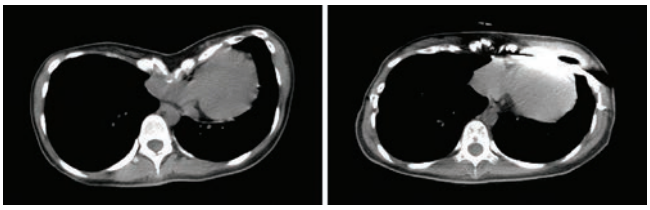
CT검사, 심장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의 검사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앞가슴의 가장 깊숙한 함몰지점과 등 쪽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3㎝에 불과했다. 오목가슴 중에서도 상당한 중증에 속했다. 심장과 폐가 좁은 공간을 이기지 못하고 눌려 있어 심폐기능도 많이 저하된 상태. 이승진 교수는 "함몰부위로 외부충격이 분산 없이 몰려 아마 생활 중 통증도 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교수를 통해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천안병원 측은 오목가슴 수술을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스튜디오에서 방송녹화 중 영상으로 수술지원 소식을 접한 심유라 씨는 하염없는 눈물을 보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심유라 씨에게 새 삶을 찾아준 오목가슴 교정수술은 '너스법

(Nuss法)'. 양쪽 겨드랑이를 1㎝ 정도만 절개하고 그 사이로 금속막대를 삽입해 함몰된 가슴뼈를 들어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은 가슴뼈 전체를 절개한 후 재조합하는 대수술이었기에 1990년대 말 너스법의 개발은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다. 너스법은 천안병원 흉부외과가 국내 최초로 도입해 결점까지 완벽하게 보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오목가슴 교정 클리닉이 되었다. 밝은 빛을 내뿜으며 금속막대의 안전한 삽입을 돕는 '광투시내시경'과 교정 실패율 0%를 실현한 '2중 압착고정장치'. 이승진 교수가 직접 개발해 특허까지 등록한 이 두 가지 장치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로 이제 이승진 교수가 교정할 수 없는 오목가슴은 찾기 힘들다. 함몰각이 심해 '2중 압착고정장치'를 이용해야만 하는 그녀의 오목가슴 교정도 이승진 교수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수술 당일 아침. 일찌감치 수술준비를 마친 심유라 씨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녀에게 심경의 변화가 왔다. 갑자기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녀. 얼굴 성형수술 후유증인 심리적인 트라우마였다. "이승진 교수님께서 금속막대를 두 개 삽입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성인이라 뼈가 굳은 상태여서 수술 후 통증도 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거친 후라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가족의 다독임과 이승진 교수의 따뜻한 배려와 기다림이 그녀의 천근 같은 부담을 가볍게 했고, 다음날 다시 마음을 다잡은 그녀는 수술방으로 향했다.



심유라씨 오목가슴 수술전 · 후 CT사진

케이블TV 프로그램 렛미인3 출연 모습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다. "수술대 위에 오른 유라 씨의 심한 오목가슴을 보고 왜 그토록 수술을 망설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이승진 교수의 첫마디이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과 함께 이 교수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개의 금속막대 삽입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이 정상 수준 가깝게 올라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수술 후 으레 동반되는 아픔도 묵묵히 이겨낸 심유라 씨는 곧 회복을 하여 1주일 만에 퇴원했다. 최근 수술 1년 만에 이승진 교수를 찾은 심유라 씨는 당시를 회상했다. "수술 당일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였는데,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교수님 덕분에 수술도 잘 받고 행복한 삶을 선물받았어요."

오랜만에 그녀를 마주한 이승진 교수도 "쫙 펴진 가슴과 어깨만큼이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밝게 웃으며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유라 씨는 진료 후 병원을 떠나며 "새 삶을 선물해 주신 이승진 교수님과 병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 화장품 모델도 시작했는데 당당한 자세로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순천향과 이승진 교수님을 주변에 많이 알릴게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1년 후에 천안병원을 다시 찾는다. 금속막대 제거를 위해서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마법 같은 의술, 무결점의 순천향표 오목가슴 교정수술. 그 마술의 주인공인 이승진 교수는 지금도 전국에서 찾아온 수많은 오목가슴 환자들에게 새 삶을 아낌없이 선물하고 있다. SCH

세계가 인정한 '순천향 의술'

순천향대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 미국 소화기병 학술대회 9년 연속 교육 비디오상

정리_ 편집부

순천향대학교 서울 ·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 조준형 · 홍수진 · 이태희)이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소화기병 학술대회에서 '아칼라지아의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최우수 교육 비디오상을 수상했다.

2006년 '위점막하 종양'으로 첫 최우수 교육 비디오상을 받은 이후 9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이중 7회가 최우수상이었고 1회는 우수상, 지난해에 발표한 '조기위암 식도암의 내시경치료'는 미국소화기학회로부터 의뢰를 받고 제작한 영상교과서다.

그동안 최우수 교육 비디오로 선정된 내용은 2006년 조기위암의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2007년 위장관 점막하종양의 내시경치료법, 2008년 조기식도암의 내시경치료법, 2009년 정맥류의 조기위암 내시경치료법, 2010년 위식도 협착의 내시경 치료법 등이다.

올해 최우수상을 받은 아칼라지아의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은 식도무이완증을 내시경 수술로 치료하는 최신 치료법을 소개한 것이다. 식도무이완증은 식도 내부 평활근 운동 질환으로 음식을 삼킬 때 정상적인 하부 식도 조임근의 이완이 없고, 중간 부위 식도는 연동운동을 하지 못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식도무이완증의 최신 치료법인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은 과거 흉부외과 수술과는 달리 피부와 갈비뼈를 절개하지 않고 몸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또 선택적으로 근육을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르다.

조주영 교수는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은 전 세계에서 몇 개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을

식도무이완증은 식도 내부 평활근 운동 질환으로 음식을 삼킬 때 정상적인 하부 식도 조임근의 이완이 없고, 중간 부위 식도는 연동운동을 하지 못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조주형(오른쪽) 교수가 조준형 교수와 함께
미국 소화기병 학술대회서 9년째 교육비디오상 수상 후 기념촬영

정도로 어려운 시술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첨단 내시경 수술법을 다룬 교육 비디오가 상을 받은 것은 미국 소화기학회가 한국의 소화기 내시경 술기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비디오상은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매년 세계 각국의 내시경 의사들을 상대로 연제를 공모하여 수백 개의 출품작 중 우수비디오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한 비디오 영상은 1편당 100~150달러에 판매해 세계 소화기 의사들의 교육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 의사들에게는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연수 평점으로 인정될 정도로 권위가 있다.

2011년에는 미국 소화기병 주간 학술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한 ASGE(최우수 교육비디오상) 자료를 집대성한 《진단 및 치료 위장관 내시경 아틀라스》를 출간하기도 했다. 국내 및 외국의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교육을 위해 제작한 이 책은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기위암, 식도암, 정맥류, 점막하종양의 내시경 치료, 상부위장관에서 최신 내시경 치료, 위장관질환의 내시경 응고술 치료, 상부위장관 협착의 내시경 치료, 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감염 및 예방적 항생제 요법에 대한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미국 소화기 학술대회는 전 세계에서 1만 6,000여 명의 소화기 내과 및 외과 의사, 그리고 관련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행사다.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과 '북극, 남극의 눈물' 시리즈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계 곳곳에서 원전사고, 대형화재, 기름유출 등 지구촌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며 'Green Korea'의 기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다양한 녹색경영을 실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리_ 편집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지난 6월부터 '행복정원 아카데미'를 출범시키고 녹색병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병원서비스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연간 프로젝트이다. 직원들이 녹색병원을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 직장스트레스를 날리고 녹색식물을 보면서 환자와 교직원이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 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행복정원 아카데미는 분기별로 연간 총 4회에 걸쳐 선발, 운영된다. 기수별로 10~12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총 8주간 전문가로부터 식물 가꾸는 법을 배우며 실제로 녹색병원 조성에 기여한다. 마지막 주에는 교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식물 전시회 및 수료식도 열릴 예정이다. 교육 및 실습 내용은 ▲허브의 종류와 흙 고르는 방법 ▲씨뿌리기와 물주기 방법 ▲식물의 생장을 도와주는 비료 ▲받침대 세우기 ▲모종 심기 ▲분갈이 등으로 구성됐다. 교직원들이 함께 조성하고 있는 정원은 별관 옥상정원 및 종합건강진단센터 앞 정원 등 2곳이다.

"고객과 함께 '힐링'해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행복정원 아카데미'출범…직원과 고객, 힐링 위한 만남의장

아직 시작단계지만 행복정원 아카데미의 파급력은 크다. 아카데미에 직접 참여하는 교직원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환자 및 전 교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종합건강진단센터 앞 정원 내에 아담한 산책로까지 조성되면서 이곳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환자 및 교직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병원서비스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비뇨기과 교수는 "녹색은 편안함을 주는 색이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녹색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병원 모든 교직원들은 행복정원 아카데미를 통해 만들어진 녹색 정원이 바라보는 모든 환자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암병동에 입원 중인 한 환자는 "정원을 가꾸니 병원이 정말 화사해진 것 같다. 장기입원으로 병원생활이 참 답답하다고 느껴졌는데 잠시나마 앉아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 몸도 마음도 'refresh' 되는 느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경영진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 행복정원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총무팀에서는 허브, 화훼, 이끼, 모종삽, 삼목판, 퇴비 등 수업 진행에 필요한 자재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총무팀의 오흥종 조경사는 아카데미의 모든 수업에 강사로 활동하며 봉사하고 있다. 시설팀에서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차양막을 설치하고 종합건강진단센터 앞 행복정원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탰다. 보안팀은 아카데미의 안전한 수업 진행을 위해 보안팀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병원서비스관리위원회에서는 가을강좌가 끝나는 10월 말 교직원들이 직접 가꾼 정원에서 '국화향 가득한 힐링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다. 음악회 개최를 통해 국화꽃 전시 감상을 비롯해 사진전, 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지난해 5월 환경부와 환경복지에 앞장서기 위한 '친환경 경영 확산 협약'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14~2015년 행복정원 아카데미 교육과정 일정

구성	기간	프로그램
봄강좌	2월 1일 ~ 3월 31일	1. 허브 가꾸기 2. 튤립 가꾸기 3. 모종/ 파종/ 삽목 4. 야생화 키우기 5. 행복정원 전시회 참여 6. 수목원 탐방 ※ 프로그램은 시즌별로 변경 가능
여름강좌	6월 1일 ~ 7월 31일	
가을강좌	8월 1일 ~ 9월 30일	
겨울강좌	11월 1일 ~ 12월 31일	

※ 매년 4기수 양성/ 기수별 10~12명 참여

백의(白衣)는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백의천사 봉사모임 '사랑회'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는 뜻이다. '나이팅게일'이나 '백의의 천사'라는 찬사가 격무에 감정노동까지 가중되는 간호사들에게 오히려 말 못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세상에 '착해야 하는' 의무만큼 무거운 의무가 또 있을까. 백의를 입고 있는 한 '천사'여야만 하는 간호사들의 애환은 간호사밖에 모를 것이다. 그런데 백의를 갈아입고 업무현장을 떠나서도 여전히 천사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들이 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돈도 안 주는 '3D'를 사서 하는 간호사들은 바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백의천사 봉사모임인 '사랑회'다

글_ 이임광 사진_ 심지연

'사랑회'는 1993년 9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간호부 직원들이 뜻을 모아 탄생된 봉사모임이다. 730여 명의 간호부 직원이 매달 1000원씩 모은 기금과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김홍수 교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사랑회' 활동내용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달라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회'의 하얀 손길이 뻗치는 곳은 한두 곳이 아니다. 자식이 있지만 부양받지 못하는 할머니, 치매를 앓는 아내를 간호하는 할아버지, 중증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딸을 홀로 키우는 엄마, 남편 없이 장애아들을 키우는 엄마를 비롯해 정신지체인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예수가족(임마누엘)', '사랑의 집', '해누림 청소년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연합회'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어르신들을 매달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드린다. 프로답게 건강까지 꼼꼼하게 체크한다. '예수가족'과 '사랑의 집' 등에도 생필품과 의료용품 등을 전달하고, 청소와 빨래는 물론 장애우들의 목욕도 도와준다.

봉사활동 중에 만난 김혜영 수간호사(천안병원 소아과병동)는 말한다.

"간호사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들 때도 많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질 때가 아닐까 해요. 일종의 매너리즘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이 분명해졌어요. 손이 모자랄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많거든요. 온 김에 한 가지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러다 보면 간호사란 누구인지, 나는 왜 간호사가 되었는지, 앞으로 병원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죠. 사람들은 저희가 이곳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고 오는 쪽은 저희랍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사랑회' 간호사들은 자식이다. 간호사들의 손을 꼭 잡고 "사는 맛이 없었는데, 이렇게 찾아주니 살맛이 난다"며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많은 간호사가 동참하고 지역 곳곳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도 사랑회가 그동안 언론에 노출이 안 된 것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꽃씨가 소리 없이 바람에 날리듯 외롭고 아픈 이웃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워주고 있다. 천안병원 분만실 조숙정 수간호사는 말한다.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드리는 도움은 도움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랍니다. 예를 들어 30년을 하루처럼 장애우를 돌보시는 '예수가족' 오윤자 원장님(이곳의 식구들은 모두 '엄마'라고 부른다) 같은 분에 비하면 저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명절 때 친정에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다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헌신적인 모습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어요."

'사랑회'는 해마다 10월이면 열리는 '1004day' 때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을 위해 일일봉사활동을 한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할 때 '사랑회'역시 100만 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랑회'는 더 후원할 곳이 없는지 천안병원 사회사업실 등을 통해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사랑회'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천안병원 신관2병동 노인희 수간호사는 말한다.

"홀로 사시는 어느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가면 한 달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까지 다 들려주십니다. 얼마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하며 재미있게 들어드린답니다. 그 어르신은 저희가 찾아뵙는 날이면 몇 시간 전부터 창틀에 기대 저희를 기다리신다고 하세요. 그러니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 방문을 거를 수 없답니다."

《어린왕자》에 나오는 사막여우가 말했다.

"네가 네 시에 온다면 나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세상은 사막처럼 삭막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회 같은 오아시스가 있어 희망은 있다. 백의는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SCH

특명, 환자 진료 대기시간을 줄여라!

구미병원 고객만족 프로젝트 가동…대기 시간 지체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찾아

병원 진료를 받는 데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일 때 환자들은 만족할까? 30분? 1시간 이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시간 정도라면 병원 진료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3시간 대기 3분 진료'로 이루어지는 대학병원 진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진료 시스템이다.
병원은 특성상 의료의 질이 높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고객 서비스 및 감동을 주기 힘들다. 더불어 각종 컴플레인을 발생시켜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마련. 구미병원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 '진료 대기시간 줄이기' 프로젝트에 나섰다.

정리_ 편집부

의사의 진료보다 짧은 대기시간에 대한 욕구 높아

2014년 순천향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구미병원 진료대기 시간 만족도는 의사 및 간호사의 서비스, 병원 내 환경, 병원 이용 절차의 편리성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지체 원인 인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진료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다.
고객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시간 만족이 떨어지는 8개 진료과를 분석했다. 이들 과는 구미병원 내원환자가 많이 편중되는 주요 과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 필요하다.

- 조사기간 및 대상: 2014년 4월 내원한 외래환자(월, 화요일 내원환자 중 임의추출)
- 조사방법: 접수유형별, 과별에 따른 대기시간 분석. 총 538건

접수유형별 (방문,전화,예약) 전체평균 진료 소요시간 분석결과, 방문 접수인 경우 내원해서 진료(검사)등 종료까지 통상 1시간 38분이 소요됐다. 전화접수와 예약진료는 원무팀 방문없이 바로 진료과 방문하여 진료종료까지 각각 56분과 50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대기 시간중 진료종료 후 수납시간이 31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채혈대기시간이 29분, 진료시작 전 대기시간이 24분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별 진료시간으로는 신경과가 96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소화기내과 83분, 이비인후과 80분순으로 나타났다.

조기진료 확대와 검사, 진료 시스템 개선으로 대기시간 단축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이뤄졌다.
신경과는 초진환자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과 검사로 타 과보다 시간이 지연됐다. 소화기내과는 내시경검사에 대한 설명과 퇴원환자 검사처방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과별 특성상 응급수술과 당일 검사결과 재진료에 의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후 영향이 큰 요인과 병원에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을 찾았다.
첫째, 환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인 월, 화요일 오전진료를 분산시켰다. 조기진료 및 토요진료를 활성화하고 본관 외벽 대형 현수막을 걸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예약환자는 대기시간이 짧은 오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더불어 주차난도 해소되고 있다.
둘째, 진료후 수납시간 단축을 위해 무인수납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도우미가 무인수납기를 이용해 빠르고 쉽게 수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가 설치도 검토 중이다.
셋째, 각종 검사 대기시간 단축방안으로 외래 통합검사실을 설치했다. 외래 중앙에 위치한 통합검사실에는 채혈, 심전도, 폐기능검사, 뇌파검사, 갑상선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이 가능하다.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채혈 지연에 따라 임상병리사도 추가 배치했다. 내시경 검사방법, MRI 촬영에 관한 설명, 수술 전 검사 등에 대한 표준 안내문을 작성하여 안내하는 방법도 시행 중이다. 체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틈틈이 진료지연에 대한 사유를 안내토록 했다. 월요일 오전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 시음회도 열고 있다. 의료진들의 진료 횟수 증대와 시술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구미병원의 진료 대기시간 만족 프로젝트는 이제 2개월째 접어들었다. 의료기관에서 '기다림'은 진단과 치료, 나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환자는 불확실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지속적인 진료 대기시간 관리를 통해 고객이 행복한 병원, 병원 이용 경험을 스토리화할 수 있도록 순천향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는 우리나라 의학계의 커다란 별이었습니다. 하늘의 순리에 따라 인간을 치료하고 고향의 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본 서 박사는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의료인의 표상이었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서 박사의 일대기에 이어 2014년 새해를 맞아 그가 남긴 업적에 대해 후학들과 지인, 서 박사를 평소 존경했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감동적인 얘기를 연재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교훈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향설 박사님에 대한 추억들

글_ 황경호(전 부천병원 병원장)

나는 향설 서석조 박사님을 가까이에서 모셔본 적은 없다. 그러나 선생님에 대한 명성과 인품이 이미 의료계에서는 신화로 존재하고 있었고 행적과 일화를 원로 교수님들로부터 귀동냥으로 들었다. 그러나 나에게도 가슴 속에 추억처럼 간직하고 있는 자그마한 일화들이 있다. 박사님은 저 하늘로 갔어도 나는 박사님을 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억의 파편들이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수련과정과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초년병 시절 같은 해 입사한 동기들이 그룹을 지어 친하게 어울려 다녔다. 나야 전공이 마취과인지라 점심을 밖에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동기들은 그 정도의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같이 하려고 동료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안과 전공인 친구가 개인적인 일로 점심시간보다 조금 일찍 외출을 했다. 그리고 뒤는 외래 간호사에게 맡겼다. 연락 중이던 친구가 경상도 말투에 조금 짓궂은 성격인데, 농담을 한다는 것이 '지금 몇 신데 근무하지 않고 있느냐'며 '들어오는 대로 이사장실로 시말서를 써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다. 더욱이 이런 농담 전화를 받은 간호사도 새내기여서 그만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간호사는 그 말을 이사장님의 지시로 알았던 것이다.

그 시각 친구 의사는 밖에서 점심을 마치고 돌아왔다. 요즘 같으면 휴대전화로 바로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호출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그는 간호사가 한 말을 한참 후에나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간호사는 놀란 가슴에 시말서 얘기는 빼고 그냥 이사장님이 급히 부른다고만 말했다. 그건 더 큰 화근이었다. 있는 그대로 시말서 얘기를 했더라면 누구의 장난인지 금방 알 수 있었을 터인데 말이다. 사실 당시 우리들 사이에는 시말서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래서 전화를 한 친구도 시말서를 써서 이사장실로 오라고 스스럼없이 농담한 것이다.

아무튼 친구 의사는 이사장님이 부른다는 말에 부랴부랴 가운을 찾아 입고 숨이 넘어가게 이사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놀란 것은 박사님이었다.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자네를 불렀다꼬…. 그런 적 없는데…."

그제야 이 친구 의사는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몸에 열이 올라 땀이 나고 안절부절못하다가 겨우 돌아섰다. 그때였다.

"자네 안과라꼬? 이리 와서 내 눈 좀 봐도. 요새 하도 침침해서 말이야."

친구 의사는 또 한 번 놀라며 가운 주머니에 반사적으로 손을 찔러넣었다. 다행히 가운 속에는 필요한 진단 기구와 안약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친구 의사는 박사님의 집무실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박사님의 눈을 치료해 드리고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한동안 동료들 사이에 나돌아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사님은 까마득한 신참 의사들에게도 소탈한 모습을 보였고 신참의 위기를 알고 그것

을 도와준 박사님의 열린 마음과 너그러움은 지금도 가슴 속 깊이 남아 있다.

또 1990년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은 토요일로 뇌사 환자의 장기를 기증받기 위한 수술이 있었다. 당시 우리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신장만 기증받고 심장, 간 그리고 각막 등은 외부병원에 의뢰하여 그날도 여러 병원에서 오신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북적거렸다. 순서에 따라 장기를 적출하는 과정에서 나는 마취과 의사로서 뇌사 환자의 혈역학적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하고 있었다. 이때 박사님께서 전화로 마취하는 의사를 찾았다. 나는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박사님은 몸이 편찮아 댁에서 전화를 하셨는데 알아듣기 힘든 경상도 말로 장기 적출은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일일이 물어보면서 한 시간마다 보고하라고 하셨다.

나는 박사님의 분부대로 한 시간마다 보고를 드렸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벨소리가 한참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으셨고 그만한 위치에 계신 분의 댁에 전화 하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그만 나는 화가 났다. 박사님은 순수와 열정에 대해서는 모범이 되고 남으셨다.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검소함을 잃지 않으셨고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맡기는 법이 없었다.

그로부터 9년 뒤 겨울, 이때 역시 토요일이었다. 나는 논문을 정리할 일이 있어 연구실에 남아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박사님께서 위독하시다는 것이었다. 박사님은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빠져 나에게 호흡을 보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결국 기관 내 삽관이 나의 임무가 되었고 박사님은 중환자실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박사님은 누구보다 생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맞았으나 치료가 집중되면서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회복이 되셨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기관 내 튜브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고 나는 사모님과 아드님이신 지금의 총장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긴장된 마음으로 튜브를 발관하였다. 박사님은 깨어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기사를 발견하곤 오라고 손짓했다. 모두가 의아해했다.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손짓하신 것일까? 박사님은 기사가 가까이 오자 귓속말로 무어라 말씀하셨다. 박사님의 말소리가 너무 작아 아무도 말을 엿듣지 못했다. 하지만 기사는 박사님의 말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때까지도 다른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했다. 기사는 몇 분 후 누런 봉지에 뭔가를 싸들고 왔는데 그것은 바로 500CC짜리 생맥주였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박사님은 맥주를 받아들고 빨대로 천천히 조금 마시더니 느닷없이 자신의 진료기록부를 보자고 하셨다. 생과 사를 넘나들며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신 분이 맥주를 마시고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보자고 하는 것은 자신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넘어 태연자약함과 호방함을 드러내신 것이기에 경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의료협약을 맺고있는 서석조 박사(오른쪽)

선생님은 우리 의료계의 전설이고 산 증인이셨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이 나라 의료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을 표방하는 순천향대병원을 만들고 가셨으니 그 공과 업적은 후대에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SCH

"직장도, 밴드도, 의족도 제게는 선물이에요"

순천향대 천안병원 콜센터 윤경희 씨, 락발라드 밴드 '으막사리' 키보디스트 활동

글_ 이임광 사진_ 심지연

'band'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붙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콜센터에 근무하는 윤경희(40) 씨에게 밴드는 두 가지 뜻이 모두 해당된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대변신을 한다. 바로 락 발라드 밴드인 '으막사리' 연습실에서다.

건반 위에서 현란한 손가락 춤을 추는 여성 키보디스트 윤경희 씨. 일과시간 콜센터에서 단정한 유니폼에 헤드셋을 쓰고 상냥하게 전화응대를 하던 '친절한 경희 씨'가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신은 무죄다. 밴드는 그녀에게 음악이자 치유이기 때문이다.

"3년째 오르내리는 곰팡내 나는 좁은 지하계단이지만 연습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으막사리는 7080음악을 주로 하는 직장인 밴드다. 연령대도 다양하고 단원들도 많은 편이라 두 팀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연습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공연을 목표로 연습하면서 다른 직장인 밴드들과 친선공연도 열고 자원봉사도 한다. 밴드가 결성된 지 7년. 멤버 간 세대차이도 있고 실력도 고르지 않으며 음악성향이 다른데도 어떻게 멤버교체 없이 밴드가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 때문에 오히려 결속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릴 때 피아노를 곧잘 치기는 했지만 마흔이 다 되어 밴드에 들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처음 연습실에 들어가 합주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온몸이 전율하고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부족한 내가 다른 멤버들에게 폐를 끼치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멤버들 모두 그녀의 키보드에 호흡을 맞추어주었다. 그녀 역시 합주의 짜릿함에 '중독'되어 연습에 열중하면서 자신감이 붙었다.

"밴드를 하기 전엔 가수 목소리나 가사가 먼저 들렸는데, 지금은 기타의 애잔한 애드리브, 드럼의 차진 박자, 베이스의 울림들이 먼저 들리죠. 제게 연습은 음악과 멤버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 즐거운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없죠."

누구나 삶에서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 손님처럼 찾아오는 행운일 수도 있고 도둑처럼 들이닥친 불운일 수도 있다. 그녀에게는 후자였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것이다. 전신 부상으로 1년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한쪽 다리를 잃은 충격과 거듭되는 접합수술과 이식수술로 그녀는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죽을힘을 다해 '오늘 하루만 견디자'며 버티다 이젠 죽을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 두 아들이 들어왔다.

"함께 차에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니고 내가 다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후 고통은 감사가 되었다. 자신의 부상은 아이들의 무사함으로 치유되고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왼쪽 다리는 남았다'는 긍정으로 채워졌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을 일으켜 의족을 자신의 다리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절름거리면서도 햇빛을 맞고 풀냄새를 맡으며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전에는 몰랐던 소소한 일상도 내겐 정말 축복이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그녀가 좌우명으로 삼게 된 한마디가 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내가 더 좋게 되려고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정말 좋은 일만 생겼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콜센터에서 일하게 되었고 으막사리의 멤버가 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으막사리는 남은 상처를 말끔히 덮어주고 아물게 한 '밴드'가 되었고 그녀를 더욱 자신감 넘치게 만들었다.

전화상담을 할 때나 원내방송 멘트를 내보낼 때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도 밝다.

"병원에서 절단 환자 분이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 지나칠 수가 없어요. 다가가 말을 건네고 '저도 의족했어요.' 하고 제 얘기를 해드린답니다. 처음엔 당황하시다가도 제가 씩씩하게 웃어 보이면 함께 웃어주세요. 서로 힘내자고 '하이파이브!'를 할 때도 있어요."

인터뷰를 마칠 무렵 병원 앞을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그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그리고 뜬금없이 "애기엄마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하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정말로 부자시냐고 묻자 그녀가 손사래를 쳤다.

"아녜요, 저 할머니께서 행상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오늘처럼 무더운 날에 할머니가 광주리를 이고 다니시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물건을 팔아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눈에는 아버지가 부자처럼 보였나 봐요."

아버지는 '마음부자'였던 것이다. 딸은 '선물부자'다.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 성실하고 친절한 콜센터 동료들, 가족처럼 끈끈한 정이 있는 으막사리 멤버들, 그들과 함께 일하는 기쁨, 그들과 함께 음악살이 하는 기쁨, 그리고 의족에 의지해 절룩거리며 일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선물이다.

병원24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국제병동

외국인 환자에게 전해주는 사랑과 희망

'글로벌 명품 의료 서비스'로 해외환자들에게 '각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첨단 의료시설과 서비스는 물론 큰 사랑과 희망을 외국인 환자들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중증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국제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은 밝다. 의료 그 이상의 사랑, 그리고 희망이 전해져서다.

글_ 전진용 사진_ 안성욱

순천향대병원 부천병원은 현재 해외 중증환자의 메카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등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곳 국제병동을 찾고 있다. 국제병동을 찾는 환자들의 80% 이상이 이미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소개를 받아 한국을 찾고 있다. 이는 국제병동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반증이다.

최첨단 의료장비와 최고의 의료진 가족과 같은 따스한 정은 '덤'

대부분이 중증환자인 국제병동에서는 간이식 수술, 무수혈 수술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에 대한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최첨단 의료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이 있기에 가능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14명의 메디컬 코디네이터와 각 파트별 의료진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은 외국인 환자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적인 '정'을 느끼게 해준다. 코디네이터의 경우 러시아 현지 출신의 의사를 포함해 의료진을 완벽히 서포트하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코디네이터만의 상주공간을 마련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최적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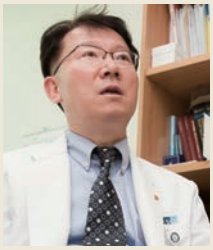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은 세심한 관리와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로 자국에서 큰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혔던 외국인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는 물론 희망과 기쁨을 함께 전해주고 있다.

6개 대륙 44개국에서 환자 러시 화상진료 등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현재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 러시아인이 가장 많지만,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중국, 미국, 몽골 등 6개 대륙 44개국의 환자들이 이곳 병원을 찾았다. 현재 월 600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현재 의료설비와 서비스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의료진의 치료의지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제병동의 수준 높고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가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글로벌 명품병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천병원 국제의료협력위원장 김형철



많은 중증 환자들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의료한류'를 이끌고 있는 성형수술이나 피부미용 치료는 물론이고 암환자 비율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증해외환자의 내원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몽골 환자 간이식 수술의 성공을 비롯해 러시아 환자 무수혈 관절수술을 연달아 성공하는 등 괄목할만한 치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 치료, 이식 수술, 무수혈 수술 등 각국에서 치료할 수 없어 좌절해야 했던 환자들에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더욱 유명한 우리병원 최고의 의료진들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병원은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해외환자 전용 '국제 병동'을 오픈해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등 각종 언어를 구사하는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환자들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화상 상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귀국 후에도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환자 여러분께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1,800명 교직원의 환대와 정성일 것입니다. 우리병원은 타국에서 병마와 싸우는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자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복강경수술을 집도 중인 외과 신응진 교수(왼쪽 두번째)

외국인 첫 간이식 성공

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외국인 환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자국으로 돌아간 환자들에게도 화상진료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관리를 세심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각종 소셜 네트워크나 카카오톡, 스카이프와 같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피드백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천병원은 의료관광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최고의 의료설비와 의료진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8:00 각 분야의 자체 컨퍼런스를 마치고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오전 회진을 시작한다. 또한 당일 이루어질 검사 및 수술 등 간호계획에 대해 기본적으로 논의하고, 처방된 투약을 시행한다. 치료와 수술경과는 물론 환자의 심리상태도 함께 체크한다. 특히 국내 환자보다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자국이 아님에도 환자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과 화상전화 등이 설치된 외국인 휴게실과 외래진료 대기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현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10:00 오전 회진 이후에도 각 파트별 주치의들과 간호사들이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다. 코디네이터들은 환자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간호사와 주치의에게 전달해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 사진은 중국인 대학생 환자와 의료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내성적인 성격의 남학생이지만 이제는 한국인 의료진과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13:20 카자흐스탄 환자의 PET-CT 검사가 진행 중이다. 오전 회진 이후 오후까지는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수술과 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이미 여러 암,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왔다. 각종 암을 비롯한 질병을 정확히 검사할 수 있는 PET-CT, MRI, CT, 심장 CT 등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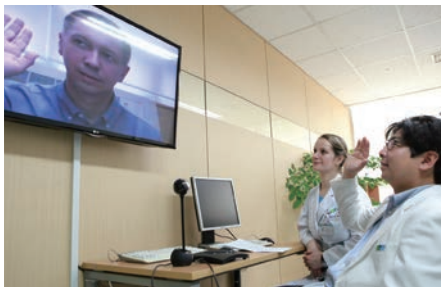
외과 정준철 교수가 외국인 환자를 상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환자의 PET-CT 검사가 진행 중이다.

14:00 국제병동의 간호사들이 담당 주치의와 코디네이터 등과 연락을 하고 있다. 국제병동은 모든 파트의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소화기내과 한재필 교수가 외국인환자에게 내시경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문종호 교수가 내시경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러시아 현지의 외국인 환자와 화상상담을 진행하는 성형외과 박은수 교수

15:1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췌담도 분야 내시경시술로 유명하다. 과거 내시경 십이지장 팽대무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실시, 외국인 환자가 간기능과 췌장기능을 완벽하게 회복해 3주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16:30 국내에서 성공적인 암 수술 등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환자들에 대한 사후진료 서비스 또한 부천병원 국제병동의 자랑이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한 후 고국으로 돌아가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화상진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 환자의 완치를 돕는다. 22페이지 하단의 맨 마지막 사진은 화상진료 시스템을 통해 자국으로 돌아간 환자와 의료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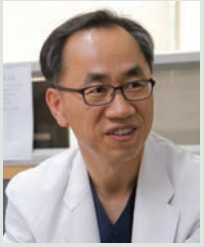
17:00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녁 회진이 실시된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주치의와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함께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아래 사진은 대장암 2기로 국제진료센터를 찾은 러시아 여성 환자와 치료경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환자에 대한 치료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러시아 환자들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국제병동을 가장 많이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양혈액내과 윤진아 교수가 대장암 2기 러시아 환자를 회진하고 있다.

Mini Interview

박성규 종양혈액내과 교수

"국제의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



많은 대학병원들과 종합병원들이 국제의료에 대한 투자와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국내의 병원들은 저수가의 의료 시스템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병동은 앞으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며 그 중요성 또한 더욱 부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천병원 국제병동은 이제 시작단계임에도 많은 해외환자 유치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첨단의 의료설비와 최고의 의료진, 그리고 외국인 환자마저 감동시키는 가족같이 따스한 의료 서비스는 우리 병동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환자들의 80% 이상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추천으로 우리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모두가 외국인 환자들과 애정과 사랑으로 함께 소통해 온 결과입니다. 앞으로 국제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료보건정책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의료진이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국제의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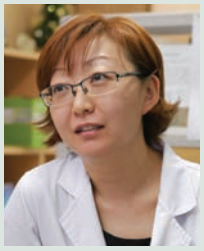
민엄주 국제병동 수간호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돌봐야죠"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14년 외국인 환자 8,000명(연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5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를 기반으로 한 우수한 의료진이 포진되어 있고,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국제병동이 개설되어 있어 우리 병원을 찾는 해외 중증환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병동 간호사들도 외국인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봄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환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간호사들이 직접 언어습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저희 국제병동은 대부분 중증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의료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 분야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퇴원 후 환자들 지인들의 재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환자들이 저희 국제병동에서의 진료가 고국에서 진료를 받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넬리 메디컬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는 환자와 의료진을 이어주는 다리"



저희 코디네이터들은 총 14명으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는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인 의료시술은 하지 않지만 외국인 환자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들은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 코디네이터가 아닌 일반 간호사들까지 직접 외국어 공부를 하는 모습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만큼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각별하다는 것이니까요.
매년 외국인 환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디네이터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국제병동은 코디네이터들의 상주공간을 설치해 환자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한다면 부천병원 국제병동이 한국의 국제의료를 대표하는 병동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순천향의 새로운 별’

세계 최초로 코 점막에서 스테로이드 합성 사실 밝혀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선정

발전은 도전과 실패의 반복으로 이룰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가치다. 의학 역시 마찬가지다. 끊임없는 연구만이 지금의 의학기술을 보다 더 높은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의학발전을 목표로 미지로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전영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에 대한 보고서.

글_ 하상원 사진_ 박승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이비인후과

전영준 교수

'Impact Factor 12점', 최상위 논문 인정받아

지난 5월 8일, 알레르기 · 면역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알레르기 · 임상면역학회지(JACI)〉의 온라인 판에 전영준 구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의 논문이 게재됐다. 전 교수는 선행 연구였던 알레르기 비염에서 11beta-Hydroxysteroid dehydrogenase (HSD)의 역할과 발현에 이어, 부비동염(축농증)에서의 HSD를 연구한 결과 코 점막 자체에서 스테로이드 합성이 이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이번 논문은 Impact Factor 12점을 획득하며 연구의 영향력 · 수준 · 가치 등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전 교수의 선행 연구였던 알레르기 비염 논문은 Impact Factor 5점을 기록했다. 참고로 대다수의 논문들은 1~3점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며, 10점 이상의 평가를 받는 논문은 세계적으로도 그 수가 많지 않다. 전 교수는 해당 논문의 게재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이하 한빛사)'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누리기도 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Impact Factor 12점을 받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비인후과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2년 동안 논문에 필요한 모든 실험을 하나하나 직접 실시하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내용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사들만 선정되는 한빛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비동염(축농증) 환자의 스테로이드는 약물 치료에 있어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로, 스테로이드 합성은 원래 부신(adrenal gland)에서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 교수의 이번 연구로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코 점막에서도 합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코 질환 치료지침과 향후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 교수는 이미 다음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코 점막이 다른 신체 기관과 달리 여러 환경에 노출돼 있고 기능도 특별한 기관인 만큼 여러 기전들을 밝히고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 한창이다. 전 교수는 일련의 연구와 논문을 통해 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획기적인 치료방법 개발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모든 경험은 내 성장의 자양분이다

전 교수는 스스로를 '행운아'라 말한다. 연구를 위한 자신의 의지를 발현할 수 있었던 환경과 스승, 동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게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줬던 이상학 교수님과 함께 실험했던 동료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 교수는 당시의 경험이야말로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휴일까지 반납한 채 매일 반복되는 수백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로 인해 '포기'라는 말이 입 끝에 맴돌았다. 명절에도 가족들 얼굴조차 보지 못할 정도였으니 당시 전 교수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눈에 그려지는 듯하다.

하지만 전 교수는 수많은 밤을 지새웠던 당시의 경험이 현재 환자를 진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직접 실시했던 실험과 그로 인해 습득했던 지식들이 '전가의 보도'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전 교수가 구미병원으로 자리를 옮긴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그를 찾는 환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의 연구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아쉽지는 않을까. 하지만 전 교수는 '환자를 만나는 순간도 연구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는 것만이 연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환자를 만나고 진료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연구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맞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 등 환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간을 더 쪼개서 실험과 연구에 할애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니까요(웃음)."

전 교수는 모든 일에 참 열정적으로 임한다. 이른바 '한 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중도포기란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순천향의 일원으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뒷모습에 사뭇 기대를 걸게 되는 이유다.

폐암에 꼭 필요한 '최첨단 내시경'

형광기관지내시경 · 초음파기관지내시경으로 진단하고, 치료기관지내시경으로 폐암 치료

글_ 최재성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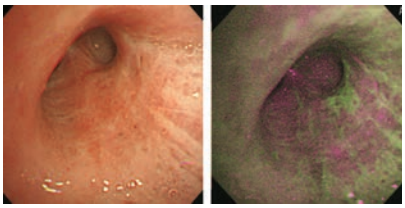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폐암은 암 사망률 1위. 그만큼 치료결과가 최악이다.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도 매우 빠르고, 진행될 때까지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 대부분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된다. 진단 시 병기는 이미 3기를 넘어선 게 대부분. 수술로 완치시킬 기회를 놓친 것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지만 증상만으로 폐암을 초기에 알아차리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40세 이상의 흡연자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정도의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똑 부러진 폐암 조기검진법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슈퍼 세이브급 선방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형광기관지내시경, 초음파기관지내시경 등 첨단 내시경들이다. 이들의 사용은 폐암 진단과 치료에 매우 유용하며,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폐암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다.

형광기관지내시경

특정 주파수의 광선을 기관지 표피에 비춰 형광 발산 여부로 정상조직과 이상조직을 구별해 낸다. 기존의 기관지내시경에 비해 형광기관지내시경을 사용하면 암을 포함해 조직변화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천안병원에서는 2008년 충청 지역에서 처음으로 형광기관지내시경 장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모든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형광기관지내시경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폐암진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연간 평균 약 700건 이상의 형광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형광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은 충청권에서 천안병원이 유일하다.

환자사례



68세 남자환자 이00 씨. 가끔 기침과 함께 피가 묻어 있는 가래가 나와 병원을 찾았다. 형광기관지내시경 결과, 주 기관지가 갈라지는 부위(분기부 carina)에만 국한된 편평상피세포폐암이 발견되어 이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함께 받았다. 치료 후 병변이 보이지 않아 완치된 듯 보였으나, 6개월 정도 추적관찰하던 중 다시 형광기관지내시경 검사상에서 우상엽 입구 부위에 재발성 표피 병변이 또다시 확인되었다(사진 우측 보라색 부분). 이 씨는 다시 광역동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2년 동안 재발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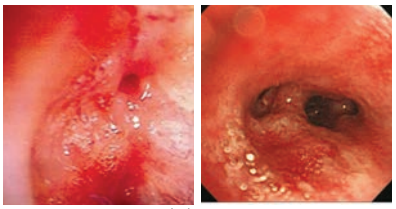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폐암은 폐 주변 종격동(양측 폐를 분리하고 있는 조직과 기관들) 림프절의 침범 여부에 따라 병기가 결정되고, 수술 여부도 결정된다. 종격동 림프절 전이 여부는 지금까지 종격동경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목 아래쪽 피부절개로 흉터가 남는 등 단점이 여럿 있었다.

최근 개발된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이 종격동경 검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신하고 있다. 검사 정확도가 높고, 전신마취도 필요 없으며, 초음파로 직접 보면서 조직검사도 한다. 현재 초음파 기관지내시경도 충청 지역에서는 천안병원이 유일하게 운용 중이다.

치료 기관지내시경

막힌 기관지 뚫고 대량 객혈도 해결



폐암으로 좁아진 기관지(좌)가 레이저 치료 후 다시 넓어진 모습

아직까지 중심기관지에 발생한 폐암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마땅찮다. 치료 기관지내시경이 대안이다. 대표적인 치료 기관지내시경 폐암 치료법은 레이저 치료, 냉동치료, 광역동치료, 근접치료, 전기소작술, 풍선확장술, 스텐트 삽입 등이 있다.

특히 레이저 치료는 기도 내부를 막고 있는 폐암 덩어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기관지 내 출혈에도 이용된다.

Q&A

Q. 폐암은 어떻게 치료하나?

A. 근본적인 치료는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지만, 안타깝게도 전체 환자의 약 20~30% 정도만 수술이 가능하다. 나머지 환자들은 항암제치료나 방사선치료에 의존한다. 최근 폐암의 유전자 돌연변이(예, EGFR mutation)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에 이용하고 있고,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치료 반응률이 70%로 아주 우수하다. 보존적인 폐암치료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고주파 온열치료다. 고주파로 열을 발생시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암으로 인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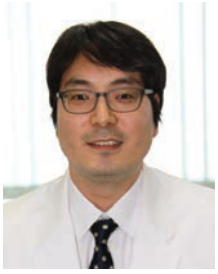
Q. 폐암을 예방하려면?

A. 확실한 예방법은 없지만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 30년 전 금연운동을 실시한 미국에서는 현재 폐암의 발생과 사망이 줄고 있다. 또 연구결과 체력이 좋을수록 폐암 위험이 최대 68% 낮다.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먹을거리로는 항암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담배로 손상된 기관지 점막 재생에 도움을 주는 파래와 은행 등이 있다.

'후덜덜'고관절 질환, 고생 말고 관절내시경으로 끝!

피부 상처를 최소화하며 위험성이 적고 회복 빨라…조기진단과 관리가 중요

인체에 가장 깊숙이 위치하면서 가장 큰 관절. 바로 고관절이다.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관절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수술이 최근 효도선물로 노인층에게 인기있다. '나이 탓이겠거니'라며 참거나 지나쳤던 환자에게 인공관절은 새로운 삶을 준다. 하지만 무엇이든 본래만한 것이 없으니 조기진단과 관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_ 황정모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정형외과 교수

40대 회사원 이모씨. 취미가 등산인 이씨는 산세가 좋다면 어디든 가는 자타공인 산악인이다. 하지만 최근 등산이라면 주저하게 된다. 석달전 지리산 등반을 다녀온 후로 생긴 통증 때문. 바닥에 주저 앉을 때는 물론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으로 결국 참다못해 병원을 찾았다. 진료 결과 '비구순 파열'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병으로 진단 받았다. 최근 각종 스포츠 활동이 유행하며 고관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발생률 높은 고관절 질환, 진단과 치료가 한번에 가능한 관절경이 답이다. 심한 관절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술, 고관절 관절경에 대해 알아보자.

의자에 앉다가도 '악', 별다른 증상없이 악화되

관절경 수술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수술이다. 하지만 고관절은 인체내에서 가장 깊이 자리 잡은 관절이다 보니 무릎이나 어깨에 비해 현재까지 고관절 관절경 시술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고관절에 대한 첫 관절경은 1931년 Burman 박사에 의해 사체 관절에서 시행됐다. 이후 1977년 Gross 박사가 선천성 고관절 탈구, 청소년성 골연골증(레그-칼베-페르테스병), 대퇴골 골두골단 분리증 등에 관절경을 시행했다. 해부학적으로 고관절은 볼과 소켓 형태의 관절로 그 주변으로 중요한 신경, 혈관 다발이 지나간다. 고관절 관절경 시술이 여느 다른 관절경 수술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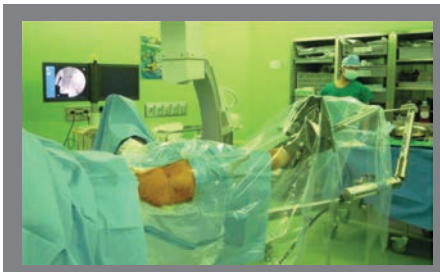


그림 1. 앙와위 자세로 견인장지 위에 준비된 환자

그림 2. 피부 상처(삽입구) 3개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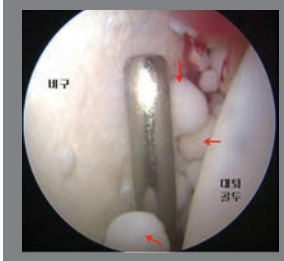


그림 3. 활액막성 연골종증에 의한 유리체 제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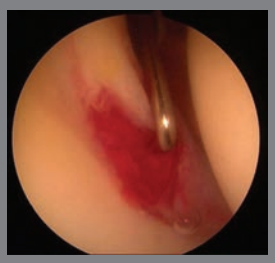


그림 4. 비구순 파열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양반다리 및 차량 승하차시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한다. 특히 사타구니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고관절 주위의 통증이 있고, 움직일 때 소리가 발생한다. 환자에 따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든다거나 걸림 증상은 필히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다.

고관절 환자들의 대부분은 증상없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고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시작하나 방치하면 비구순 파열, 관절연골 손상 등을 유발한다. 회사원 이 씨의 경우 관절과 관절 사이에 밀착을 도와주기 위한 고무 패킹인 비구순이 반복적인 등산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구멍 3개, 위험성 적고 회복이 빠른 관절경 수술

과거엔 관절을 광범위하게 잘라낸 뒤 대퇴골을 비구에서 빼서(인위적인 고관절 탈구) 병이 있는 부분의 뼈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하지만 이런 고관절 탈구의 수술 과정은 무혈성 괴사 위험과 절개 범위가 커서 수술 후 통증과 일상 복귀가 늦었다.

이에 비해 관절경은 획기적인 수술이다. 수술시 환자를 견인장치 위에 환측 다리를 견인하여 시행한다.(그림 1) 수술시 발생하게 되는 피부 상처(삽입구)는 1cm 정도로 최소화되어 수술 후 고관절 주위에는 3개의 상처가 남는다.(그림 2)

확대된 관절경을 통해 관절 상태 및 관절 속의 작은 이물질과 손상된 부분을 직접 볼 수 있고, 삽입구를 통해 찢어진 비구순을 꿰매거나 손상된 부위의 뼈를 다듬어 주는 골성형술이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수술법은 비구순 파열의 진단과 치료 외에도, 유리체의 제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연골 손상, 활액막 병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화농성 관절염, 원인을 알 수 없이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단적 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강직증 혹은 관절 섬유화증 환자, 연부조직 혹은 수술부위 창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한 비만증, 고관절 퇴행성 병변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고관절 관절경 수술 받을 수 없다.

지역 최초, 고관절 관절경 클리닉 운영

수술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광범위한 절개대신 관절내시경을 통해 고관절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 절개가 1㎝ 미만으로 출혈과 수술에 대한 위험이 적습니다.
- 수술부위를 절개하지 않으므로 흉터를 최소화합니다.
- 빠른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담당교수 : 황정모 교수
문의: 정형외과 468-9120

고관절 관절경의 적응증

유리체	연골 병변
비구순 파열	활액막 질환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발음성 고관절증	원형인대 파열
화농성 관절염	고관절 불안정증
대퇴골두 무형성 괴사증	골두 박리성 골연골염
인공관절 수술 후 상태 확인	관혈적 술식에 동반된 보조적인 관절경술

노화로 인한 '눈꺼풀 처짐' 치료법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안과 장선영 교수팀…'결막뮬러근절제술',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법 검증

글_ 장선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안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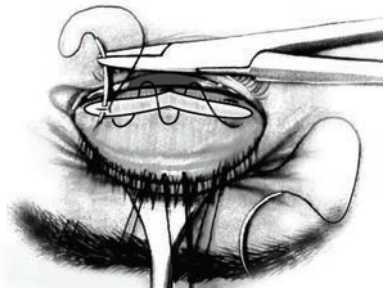
안검하수는 그동안 눈꺼풀 바깥쪽에서 피부를 절개하여 근육을 절제하는 쌍꺼풀 수술이 주요 치료법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제 쌍꺼풀 수술 대신 눈꺼풀 안쪽에서 일부 근육만 제거해 원래의 눈 모양을 보존할 수 있는 안검하수 치료법인 '결막뮬러근절제술'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안과 장선영 교수팀이 최근 지난 10년간 임상결과를 분석해 그 효과성을 검증했다. 해당 연구는 그동안 결막뮬러근절제술이 잘 적용되지 않았던 동양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SCI급 저널 〈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 최신호에 게재됐다.

결막뮬러근절제술…수술티 안 나고 수술시간 짧은 것이 장점

안검하수는 노화로 인해 눈꺼풀이 처져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안검하수 환자의 경우 피부 절개 없이 눈꺼풀 안쪽으로 접근하는 결막뮬러근절제술에 따라 교정을 한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수술시간이 짧은 것은 물론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나 부담감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동양인의 경우 눈꺼풀 안에 위치한 근육이 두꺼워 결막뮬러근절제술이 자주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동양인은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과는 달리 수술 후의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혀왔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동양인 안검하수 환자에게도 결막뮬러근절제술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양쪽 눈의 크기가 동일하면 수술 성공, 수술한 눈이 반대쪽보다 커지면 과교정, 1mm 이상 더 작으면 저교정으로 판단했을 때 84%의 성공률을 보였다. 장선영 교수는 "지난 10년간 결막뮬러근절제술을 교정한 환자 64명을 살펴본 결과 53명이 수술에 성공했으며, 2명이 과교정, 9명이 저교정으로 나타났다"며 "84%의 높은 성공률을 보인 만큼 향후 동양인의 결막뮬러근절제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법으로 인정받아 환자들에게 보다 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결막뮬러근절제술은 동양인에서 거의 시행되지 않아왔기 때문에 10년간 단 64명의 데이터만 남아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서양인 위주에서 동양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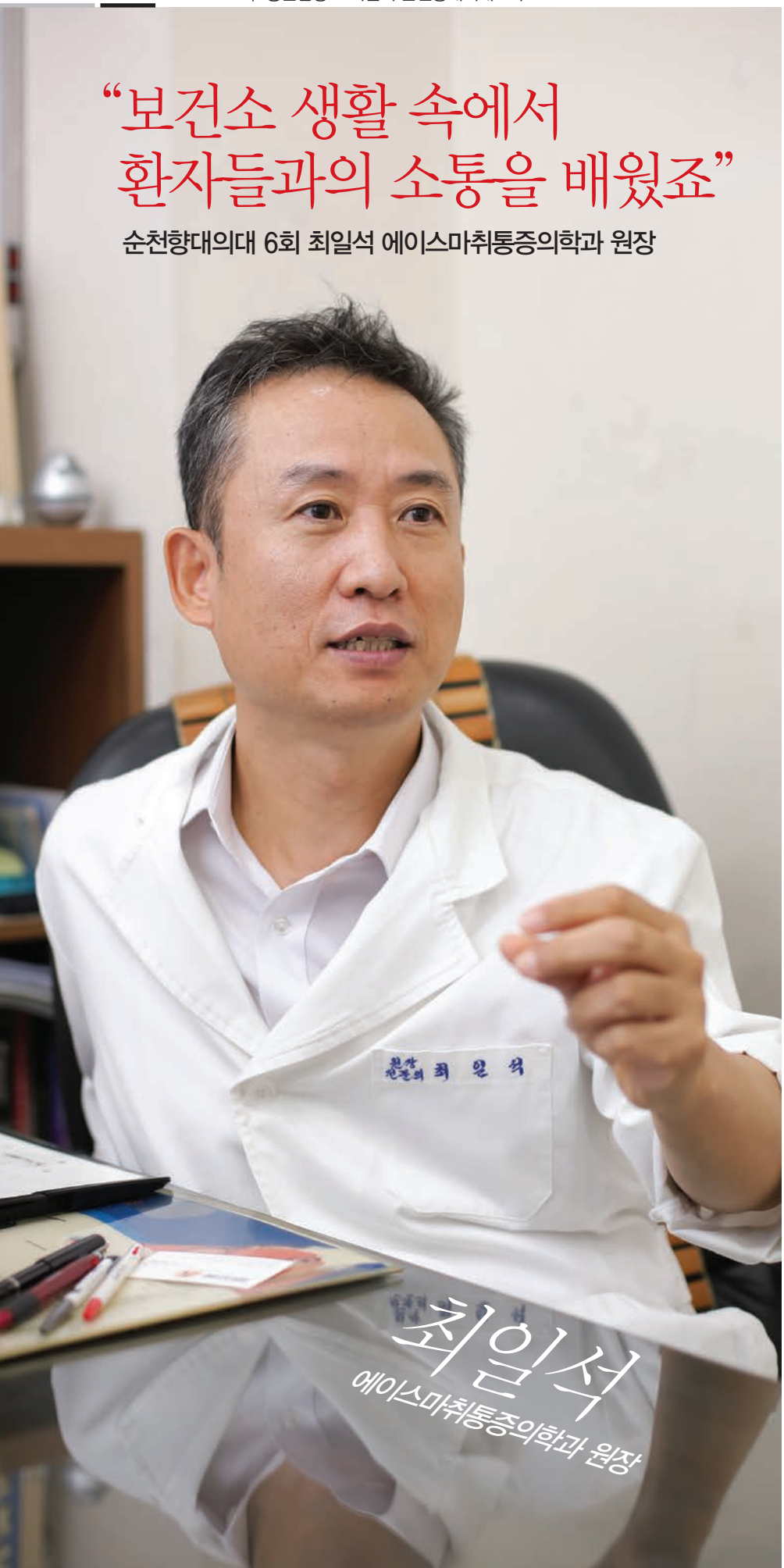
장선영 교수팀 연구에서 또 주목할 점은 결막뮬러근을 어느 정도 절제해야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밝혀졌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기존의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결막뮬러근절제술의 경우 결막뮬러근을 1mm 절제할 때 눈꺼풀이 올라가는 양이 0.25~0.32mm이지만 동양인은 결막뮬러근을 1mm 절제할 때 눈꺼풀이 0.18mm 올라가 서양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결막뮬러근절제술 시행 시 정확한 근육절제를 통한 치료성과 향상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동안 환자에게 결막뮬러근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효과예측을 하기 위해 막연히 사용돼 왔던 페닐에프린 안약도 이번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검증됐다. 기존 서양인의 눈을 기준으로 시행됐던 결막뮬러근절제술이 동양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수술법이 연구되었다는 것이 이번 장선영 교수팀 연구의 가장 큰 성과다. 이번 연구로 환자의 눈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막뮬러근절제술이 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막뮬러근절제술 방법: 눈꺼풀 안쪽으로 접근해 결막뮬러근을 절제한 후 봉합한다.

"보건소 생활 속에서 환자들과의 소통을 배웠죠"

순천향대의대 6회 최일석 에이스마취통증의학과 원장



"많이 놀았어요."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이 말이다. 말 그대로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의대생 느낌이 아직 남아 있었다. 다른 의대생들이 누리지 못했던 대학생활의 낭만을 최일석 원장은 이 '놂'으로 누렸다. 이 '놂'이 지금 최 원장이 환자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는 본인조차 알지 못했다.

글_ 하상원 사진_ 도종환

놀기 좋아했던 학보사 의대생

최 원장은 6회 동문이지만 학창시절은 8회 동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쉬운 말로 2년을 박(?)았다.

최 원장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의대생이지만 1983년, 1984년 학보사 활동을 하며 나름 저널리즘과 학생운동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웃었다.

하지만 학교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데 회의가 들었고,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졌지만 여건상 이조차도 녹녹치 않았기에 되레 학업만 자연스레 소홀해졌다. 최 원장의 '놂'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친한 동기들 몇 명과 학보사 활동도 하고 학생운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논두렁밖에 없는 시골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어요? 그저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술 한잔 걸치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신뢰를 쌓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 되는 병원은 아니었지만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며 노는 생활을 즐겼죠. 하지만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그 안에서 또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가 어울리던 친구들도 하나둘 해병대 가네, 군내 가네 하며 흩어졌다. 이에 자의든 타의든 조금씩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다. 동기들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지만 1991년에 드디어 의사면허를 획득했다.

"놀았던 것에 비해 어렵지 않게 의사면허를 취득한 거 같아요. 그리고 군복무를 대신해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의 보건소 지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이 일이 제가 의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소통을 배우다

최 원장은 보건소 지소장을 지내면서 소박하고 순박한 지역 주민과 소통을 시작했다. 그저 마음에 맞는 친구와 어울리듯, 오래된 이웃과 어울리듯 지역사회에 융화되고 흡수되었다.

"일과가 끝나면 동네 친구와 형들, 주민들과 막걸리 한잔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레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아가고 함께 나누게 되었죠. 의사로서 내가 자그마한 역할을 한 셈이었어요."

최 원장은 "그동안 의사라는 직업에서 생기는 압박과 중압감에서 벗어나 환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의사로서의 철학도 생긴 거 같아요. 당시 많이 부족한 풋내기 의사였지만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 환자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배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 원장은 보건소 지소장을 그만둔 후에도 매년 몇 번씩 태안군 남면을 찾아가 지역주민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 봄에는 꽃게, 가을에는 대게를 함께 먹으며 '놂'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1999년에 드디어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처음으로 개업을 했다. 현재는 매우 번화한 거리지만 당시에는 시골스러움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산본에서 지역주민들과의 또 다른 소통이 시작됐다.

"비만, 통증 분야는 중년 분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가 많습니다. 예전에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신뢰를 쌓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 되는 병원은 아니었지만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 원장은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부인과 세 딸을 가진 15년 된 개인병원의 병원장으로 지역주민과 어우러지고 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조직이사로서 작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저희 순천향대학교 의대생들은 다 가족 같았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함께 하숙하며 지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다들 웃을 거예요. 저에 대해 다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웃음). 그래서 저희 동문회는 다른 곳과 달리 뭔가 더 끈끈한 것이 있습니다."

최 원장은 "의사로서 더 큰 욕심은 없지만 환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이웃 같은 의사이고 싶다"며 "많은 후배 의사들도 목표는 가지되, 욕심은 버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몇 년 전부터 골프를 배워 틈날 때마다 친구들과 운동을 즐긴다는 최 원장의 모습에서 중년 의사로서의 또 다른 '놂'의 소통이 느껴졌다. SCH

제11회 순천향인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제11회 순천향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6월 15일 총동창회 주관으로 순천향대학교 체육관과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의대 동창회에서는 김범태 회장과 전진우 사무총장, 백무준 장학이사, 이규 비전정책이사 등 4명이 참석해 소정의 격려금을 지원했다.

2014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순천향대의대 동창회는 5월 17일 오후 6시부터 서울병원 신관 청원홀에서 임원, 지역대표, 재경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김범태(2회) 회장과 김동원(2회), 이광석(2회) 부회장, 이성근(2회) 명예회장, 엄민용(2회) 자문의원, 이영홍(3회) 부회장, 심진섭(5회) 홍보이사, 전진우(5회) 사무총장, 기획이사 박정훈(6회), 안양지역 대표 서정룡(6회), 조직이사 최일석(6회), 재경동창회 총무 윤석구(8회), 송파지구 지부장 최원림(10회), 홍보이사 이신제(10회), 홍보이사 주현수(14회), 간사 김선숙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창회 조직, 활동, 재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모바일 연동 홈페이지 사업보고, 재경동창회 현황보고 등이 이뤄졌다. 또한 회원 명부 책자 발간을 추진키로 했으며, 동창회 회보 발간과 순천향대학교 기숙사 신축 지원 등의 안건을 토의했다.

모바일 연동 홈페이지 오픈

순천향대의대 동창회는 최근 모바일과 연동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순천향대의대 동창회 모바일 앱 아이디(이메일)와 비밀번호로 통합되어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순천향대의대 동창회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거나, 동창회 홈페이지(www.schmd.net)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 가입했던 동문도 재가입(아이디=이메일)해야 한다.

김범태 동창회장, 제주동문회 '순제회' 방문

임기 2년차에 접어든 김범태 동창회장이 제주동문회인 '순제회'를 첫 번째로 탐방했다. 순제회는 15년 이상 서귀포에서 개원을 해온 이권호(6회) 현 회장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같이 지내고 있다. 19명의 개원의 및 봉직의와 4명의 제주대학교 교수(4회 강현욱, 18회 정선영, 18회 이애령, 22회 김영석) 등 총 23명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제주동문회에서는 "총동문회 방문을 많이 기다렸고 고맙게 생각하며, 먼 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동창들을 배려해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창회 임원진, 김성구 중앙의료원장과 간담회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은 3월 14일 동창회 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성구 중앙의료원장은 4월 2일 서울병원 40주년 개원기념 행사와 천안병원 확장 소식, 각 병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홍보에 열심이라는 소식과 서교일 총장이 대학교와 의료원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범태 동창회장 역시 동창회 활동을 전하고 "돈 잘 버는 의사보다는 '정말 환자 잘 보고 좋은 의사'라고 정평이 나 있고 순천향의 이념, 정신을 바탕으로 의사로서의 윤리적 자세를 견지하고 순천향인만의 개성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창회 임원 및 순천향장학회 이사 연석회의 조명구 순천향장학회 이사장 사의표명

동창회 임원과 순천향장학회 이사들의 연석회의가 3월 15일 서울역 근처 음식점에서 열렸다. 조명구 순천향장학회 이사장의 사의표명으로 열린 연석회의에는 김범태 동창회장, 강명식 자문의원(장학회 감사), 안상묵 감사, 이영홍 부회장(장학회 이사), 백병준 장학이사(장학회 이사), 전진우 총무, 남해선 장학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남해선 이사는 장학회 활동상황 및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백병준 이사가 제의한 장학회 정관에 대한 고찰 및 발전을 위한 개정 사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참가자 전원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김범태 동창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장학회를 맡아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장학재단을 이끌어온 김진국 전임 이사장, 조명구 이사장과 장학회 이사들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했다.

순천향대의대 동창회 발전기금 안내

전 동문 월 일만 원(자동이체 또는 매년 십만 원) 모금운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하나은행 662-910022-17605 순천향대의대 동창회)

동문들이 기탁하신 기부금은 동창회와 동창회관 건립기금, 대학발전 및 학생활동 지원 등에 소중히 가치 있게 사용됩니다.

***뜻 있는 동문님의 기부금(또는 약정) 부탁드립니다. 일백만 원 이상 기부 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치아 건강엔 '역적'인 웰빙 식품 4가지

글_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건강엔 이롭지만 치아에 해로운 식품들이 있다. 최근 미국의 ABC방송이 소개한 '치아를 망치는 의외의 식품 4가지' 중엔 웰빙 식품으로 통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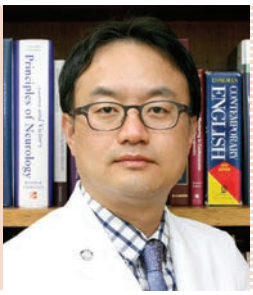
첫 번째는 오렌지 · 레몬 등 감귤류다. 감귤류는 노화의 주범인 유해(활성)산소를 없애는 항(抗)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가 풍부하다. 비타민 C는 잇몸 안에 있는 콜라겐을 유지시키는 데도 필수적인 영양소다. 하지만 오렌지를 과다섭취하거나 레몬이 든 물을 많이 마시면 신맛을 내는 산(酸) 성분 탓에 치아의 맨 바깥층인 에나멜(법랑질)이 부식될 수 있다. 2011년 '영국 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몽주스는 콜라만큼 부식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류 주스를 마셨다면 20분 내에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식초에 절인 채소다. 역시 산(식초) 성분이 치아에 손상을 주는 것이다. 절인 채소엔 당분도 상당량 들어 있다. 식초에 절인 채소를 먹은 뒤에 치즈를 한 입 먹으면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말린 과일이다. 말린 과일엔 당분이 많이 들어 있다. 치아에 잘 들어붙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음식이 치아에 들어붙으면 입 안에 찌꺼기가 많이 남게 되고 그만큼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콜라 등 탄산음료보다 끈적끈적한 떡이 치아 건강에 더 해롭다고 평가되는 것은 그래서다. 말린 과일을 먹었다면 물로 입을 헹구거나 20분 내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네 번째는 커피다. 커피엔 클로로겐산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치아를 얼룩지게 할 수 있다. 치아가 착색(着色)되면 플라크(치태)가 더 쉽게 만들어진다. 여름철엔 설탕 · 우유 등을 듬뿍 넣은 '다방 커피'나 '카페라테'보다 시럽 등 당분을 넣지 않은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마실 때도 빨대를 이용하는 게 좋다. 삼계탕 · 추어탕 · 보신탕 등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여름 음식도 치아엔 부담스런 존재다. 국물에 염분 · 기름이 포함돼 있는데다 뜨거운 국물 자체가 입 안 보철물의 마모 ·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여름철 별미인 냉면 · 오이냉국 · 미역냉국도 치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식초(산성)가 든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치아에 유해하다고 해서 안 먹을 수도 없다. 삼계탕 · 추어탕 같은 음식을 즐겼다면 뜨거운 국물 섭취 뒤 바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다. 밥을 국에 말기보다는 밥에다 국이나 건더기를 얹어서 먹는 것이 낫다. 냉면 · 냉국을 먹을 때는 식초를 한두 방울만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麵) 씹기를 소홀히 하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 치아가 잘 상한다. 전문가들은 "탄산음료는 섭취를 자제하고 마신 뒤엔 칫솔질이 필수"이며 "탄산음료나 커피 대신 보리차 · 녹차 · 감잎차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쓴맛을 내는 맥주에도 당분이 들어 있다. 맥주의 원재료인 보리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설탕이 상당량 들어가기 때문이다. 맥주를 즐길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안주로 곁들인다.

카페라테나 우유가 든 커피를 마셨다면 물을 마셔 산을 중화시키거나 산을 씻어내는 침이 나오도록 자일리톨 등 무(無)설탕 껌을 씹는 것이 효과적이다.



불면증 안전하게 해결하는 '인지행동치료' 아세요?

글_ 양광익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과 수면클리닉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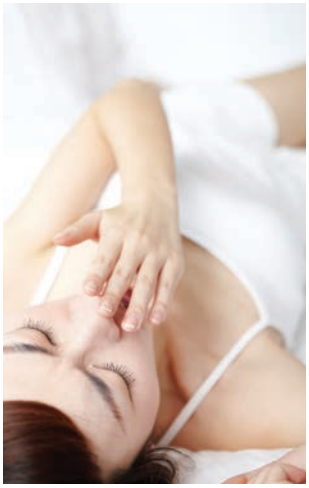
한여름에는 열대야로 인해 잠을 설치기 십상이다.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했다면 여름밤은 더더욱 괴롭게 마련. 그럴 때 쉽게 손이 가는 게 수면제다. 그런데 무턱대고 수면제를 복용하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 2차성 불면의 원인을 교정해 주고,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면제는 안전성이 높아졌다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많다. 속효성이 장점이지만 제한된 기간에만 사용해야 하고, 약을 중단하면 불면증이 재발하는 단점이 있다. 장기복용하면 내성과 의존성을 높이고, 주간 졸림도 유발한다. 주간 졸림은 각종 사고의 주범이다. 노인들의 수면제 복용은 더 위험하다. 현기증, 기립성 저혈압 같은 증상들을 일으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노인 낙상은 골절 및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 수면제는 또 수면 중 돌연사의 한 원인인 폐쇄수면무호흡과 같은 수면장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와 반면에 비약물 치료인 인지행동치료는 안전성이 매우 높다. 의존성, 부작용 위험이 없고, 치료효과도 지속된다. 모든 불면증에 적용할 수 있고 좋은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수면제처럼 속효성이 없다는 게 단점이다. 대개 3, 4주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인지행동치료,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 설문지를 작성한다. 그 다음 설문을 기초로 동반된 질환, 수면행태에 대한 자세한 문진과 진찰을 실시한다. 또 1~2주간 자신의 수면양상 및 느낌을 적는 수면일기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면증 악화 요인을 바꾸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행동을 배운다. 긴장완화 운동, 생체 자기제어, 수면제한, 수면자극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비록 이런 방법들은 3~6주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상 수면양상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효과는 1~2년 이상 지속이 되며, 불면이 재발되더라도 인지행동치료를 다시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 사례

2년 넘게 수면제를 거의 매일 복용하던 김 모 씨(여 53).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고, 수면제를 복용해도 고작 2~3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할 뿐이었다. 침대에 7시간씩 누워는 있지만 불면으로 밤새 뒤척이고, 낮에는 정신이 몽롱하고, 머릿속이 맑지 않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신경과 수면전문가를 찾아 인지행동치료를 시작한 김 씨. 1주가 지나면서 수면제 복용을 중단했고, 4주를 지나면서는 수면시간도 부쩍 늘어났다. 밤 11시 30분경 잠자리에 들면 이내 잠이 들었고, 아침 5시까지 숙면을 취했다. 낮에도 몽롱함 없이 정신이 맑았고, 몸무게도 3㎏나 빠졌다. 안색도 좋아져 주변으로부터 인사를 받기에 바쁘다는 김 씨는 인지행동치료로 행복한 삶을 되찾았다.

여름철 조심해야 할 감염질환

글_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

날씨가 무덥고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이처럼 여름은 각종 미생물에 의한 감염질환이 크게 증가하는 계절이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주요 감염질환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패혈증까지 유발하는 식중독

식중독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노출돼 발병하는 감염성 혹은 독소형 질환을 의미한다. 특히 6~8월 사이 살모넬라균, 병원성대장균 등에 의한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증세로는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패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며, 물은 끓여서 먹는 등 사소한 위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안전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 사이트(www.mfds.go.kr)를 운영하며, 식중독 예방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식중독 지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식중독 지수가 높은 날에는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발에 잘 생기는 감염질환 봉와직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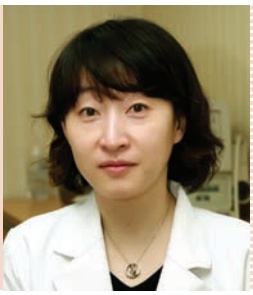
봉와직염(cellulitis)은 피부의 진피와 피하조직에 잘 나타나는 급성 화농성 염증으로 주된 원인균은 포도알균과 화농연쇄상구균이다. 봉와직염은 주로 발에 잘 발병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발에 습기가 잘 차게 마련이고, 잦은 외부활동으로 발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 봉와직염이 많이 발병한다. 특히 무좀이 있는 환자나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여름철에 봉와직염에 감염될 위험성이 더욱 높으므로 특별히 발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주요 증상은 발이 붓고 발열감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을 느낀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 노출이 많은 여름철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발을 잘 선택하고, 발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살인진드기로 악명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최근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and Thrombocytopenia Syndrome)은 산과 들판의 풀숲에 살고 있는 일명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과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한다. 특히 적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간, 신장 기능의 저하 및 다발성장기부전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무서운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작은소참진드기의 활동이 활발하고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잦은 5~8월 사이 주로 발생한다. 안타까운 것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한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이나 들판 등 야외에서 활동해야 하는 날에는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벌레 퇴치제 등을 사용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의 모습. 간, 신장 기능의 저하 및 다발성장기부전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 문의 : 032)621-5206(감염내과 외래)



검사와 제거를 동시에, '유방진공흡인생검술'

글_ 이지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과 교수

2013년 유방암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유방암 발병 환자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996년 10만 명당 16.7명 발생하던 것이 2010년에는 10만 명당 67.2명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16,000명 가량의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식이 패턴이 서구화되면서 유방암의 발생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방암의 생존율도 점점 증가되어, 우리나라 환자의 유방암 치료성적은 미국, 일본과 거의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유방암 치료수준의 향상과 동시에, 유방암 검진을 통해 초기에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인식이 확대되면서, 유방 증상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검진을 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치밀유방인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유방촬영에 더해 초음파의 시행이 같이 이루어진다. 초음파상 발견되는 종괴의 경우, category 1부터(양성소견)부터 catergory 6(유방암으로 진단된 종괴)까지로 분류되며, category 3나 4a 등과 같은 감별이 필요한 유방 종괴는 생검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가는 주사바늘로 세포를 채취하는 세침흡인검사나 바늘을 삽입하여 여러 번 fire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중심생검에 비해, 진공흡인생검술은 바늘을 삽입한 후 비교적 많은 양의 조직을 얻을 수 있으며, 한번의 삽입으로 여러 조직을 얻어내어 종괴의 제거까지 가능한 시술이다.
조직검사 경로의 암세포 전이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이 연구된 바가 없다. 중심생검과 비교하여 세포 전이의 빈도가 적었다는 보고가 있고, 조직검사 경로에 전이된 암세포가 생존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져 간혹 수술 전 항암치료(neoadjuvant chemotherapy) 시 조직검사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진공흡인생검술이 수술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유방진공흡인생검술은 조직검사가 필요한 유방종괴뿐만이 아니라, 유방농양이나 혈종과 같은 배액이 필요한 종괴에서도 진공을 이용하여 흡인이 가능하다. 또한 양성종양이기는 하나 크기가 큰 경우, 유방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3~4mm의 작은 절개창으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어 미용적 효과와 환자의 만족도가 크다. 시술 후 혈종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경미한 경우가 많아, 임상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농업인 건강 · 안전 지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급

글_ 김진석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산재나 직업병이라고 하면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외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지만,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 의하면 농업은 재해율(1.25%)이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9%)보다 높은 재해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재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인 광업이나 건설업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간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근로자들의 땀과 희생만이 강조되고, 농촌사회의 안전과 보건은 소홀히 다뤄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인 인구 수 약 310만여 명,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는 단일 직업군으로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2006년부터 농업인들의 직업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농작업 안전사업은 건강진단과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재해와 질병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 마을과 농업인의 안전 보건 문제점을 파악한다. 나아가 조사결과에 기초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안전보건 교육, 건강증진 사업 등 농민과 농촌마을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2~3년간 수행한 후 다시 사업의 성과를 평가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민들의 재해율은 근로자들보다 4~7배 높았으며, 농업인의 약 80%가 작업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 고령인 점과 더불어 열악한 노동환경,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농촌마을과 농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다행히 시범마을에서 3년간의 사업이 완료된 후 농민들의 건강상태를 재평가해 보니 거의 건강과 안전상태가 호전됐다. 특히, 농업인에게 가장 많은 팔, 다리, 허리 등의 근골격계 통증이 호전됐다. 사업단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집중한 결과였다. 농작업 편의 장비의 보급, 근력강화를 위한 체조, 스트레칭 교실, 물리치료 및 통증치료의 수행이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안전보건 의식이 향상됐고 농약 살포, 보관, 농기계 안전 분야에서도 행위실천이 증가했다. 조사 결과 나타난 안전보건 성과보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사업 후 마을에서 새로운 활기가 넘치고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농촌마을 특유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농작업 안전사업은 시범마을 농업인 100명에 국한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전국적 사업으로 확산돼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제도로 인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이환될 경우 치료와 노동능력 손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그 자신이 사업주라는 특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한 농작업재해보험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사 지으면 골병 든다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농촌의 미래도 없고, 나아가 우리의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곳도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해도, 좋은 공기와 맑은 물 흐르는 곳에서 마을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기꺼이 엄마가 되어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사랑

천상병 & 목순옥

글_ 홍지화 (소설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고난의 연속이었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저 아름다운 소풍길이라고 생각했던 시인, 천상병.

세상은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시인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막걸리 한 홉만 있으면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진심으로 행복해 했던 사람이다. 그의 시는 맑은 영혼의 울림이었고, 그는 진정 순결하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바보가 된 천재

과거 암울했던 시절, 국가기관의 횡포로 인해 불우한 삶을 살다간 시인 천상병(千祥炳: 1930년 1월 29일~1993년 4월 28일)은 특이한 외모만큼이나 행동도 특이해 종종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인으로 통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짠한 페이소스를 간직한 채 세안의 시선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게 살다가 마침내 하늘로 돌아간 시인 천상병.

남달리 책 읽기를 좋아했던 문학소년 천상병은 학창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책을 마음껏 사볼 수 없어 서점에 매일같이 들러 문을 닫을 때까지 책을 읽었다. 하루 종일 서서 책을 읽는 그를 가엾게 여긴 서점 주인이 가끔 책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천상병은 이를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고마워했다. 그는 마산중학교 시절 당시 국어 선생님이었던 시인 김춘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끔 자작시를 스승에게 보여줬는데, 그는 천상병의 재능을 매우 애지중지 여겼다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엉뚱한 구석이 다소 있었지만 말도 잘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똑똑한 사람이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그룹인 서울상대에 입학했으나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돌연 자퇴해 버렸다. 시인이면 됐지, 시인에게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대학교를 자퇴한 후, 그는 예리한 직관력과 감수성으로 시인과 비평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무게감 있는 평필로 이름을 날렸으며 돈키호테 식의 독설로 선배 문인들을 당혹케 할 만큼 패기가 넘쳤다.

그러던 그의 일생에 결정적인 파란이 닥쳤다. 바로 '동백림 사건'이다. 이는 과거 제3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간첩단 사건으로서 학계와 예술계 인사들 중 194명이 연루된 큰 사건이었다.

결국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야 진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자백을 받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이 저질러졌다. 그들은 극심한 고문으로 더 이상 사회활동을 못할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세상으로 나왔다. 천상병 또한 운 나쁘게도 이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다.

천상병은 1967년 6월 25일, 동백림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그와 서울상대 동기동창이었던 강빈구가 동베를린에 가서 간첩행위를 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그것을 미끼로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 당시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6개월 동안 전기고문 등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곧잘 그는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에게 술값 명목으로 단돈 몇 푼을 얻곤 했던 것을 문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올가미를 쓰는 계기가 되어 남은 일생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았으니 이 얼마나 가혹한가.

기꺼이 엄마가 된 여인

흔히 신이 함께 해줄 수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는 말이 있다. 지나친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천상병을 너무나 가엾이 여긴 신이 자신의 천사인 문순옥을 그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싶다.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던 천상병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 기적처럼 한 여인이 나타났다. 바로 그의 영원한 반려자 목순옥.

1972년 5월 14일,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결혼식이 치러졌다. 당시 43세 노총각과 36세 노처녀였던 그들의 결합이 장안의 화제가 된 이유는 값진 사랑의 승리였기 때문이었다.

누가 보나 그들의 결합은 한쪽이 상대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야 하는, 그리 평등하지 못한 결합이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한 그 맹목적인 희생은 아름다운 동행이 되었다.

목순옥은 천상병의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여고 2학년 때 오빠 소개로 천상병을 처음 만났다. 서울상대를 자퇴한 그는 당시에도 조금 튀는 사람이었다. 처음 만난 친구의 여동생과 이야기를 하면서 코를 후비지를 않나, 별 얘기 아닌데도 다방이 떠나갈 듯 크게 박장대소를 않나…. 하지만 두 사람은 곧 친해졌다.

천상병이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채 폐인으로 정신병원을 전전할 때에도 목순옥은 그를 변함없이 진심으로 대했고 헌신적으로 보살폈다. 그녀는 천상병을 위해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의 정신연령으로 사는 남편의 팔과 다리가 기꺼이 되어주었다. 전혀 생계에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도 도맡아 했고, 27년 동안 한결같이 한 사람만을 위해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수락산 밑 초가집 문간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아침이면 수락산 입구까지 산책하고 와서 아침을 먹고, 소꿉놀이하듯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힘들었죠, 결혼생활 20년 동안 참으로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살았네요. 남편은 그저 순수한 삶을 살다 간, 아이 같은 심성을 가진 시인이었죠. 아마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없을 거예요."

그녀의 생전 인터뷰 내용이다.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은 천상병 시인은 진흙밭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에서 고백했다. 마치 즐거운 소풍을 마치고 폴짝폴짝 뛰어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마지막 길도 그렇게 평화로웠으리라.

산들바람 속에 낮잠, 이런 행복을 잊고 있었다니…

텃밭에서 잡초(?)와 씨름하다

글_ 김민수 오마이뉴스 객원 기자

7월 첫날, 아침부터 뙤약볕이 내리쬔다.

비가 온 뒤에는 땅이 고슬해서 잡초를 뽑기가 수월하지만, 이렇게 메마른 땅에 뙤약볕까지 내리쬐는 날은 잡초 뽑기가 몇 배는 힘들다. 그래도 천천히라도 뽑아야만 한다. 어머니는 김을 맬 때마다 늘 말씀하시곤 했다.

"야야,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 일 쉽게 하려고 대충 위만 잘라놓으면 금방 자란다. 그리고 말이야, 보이지 않아도 잡초를 뽑아내는 만큼 채소는 더 실하게 자라는 거야." 올해 텃밭은 영 시원치가 않다.

고구마 순을 심고 가뭄이 이어져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했고, 줄기가 타죽은 것들도 많다. 소위 고구마 땜빵도 했지만 그리 잘 되지 않은 듯하다. 게다가 고구마순 대신 잡초만 무성하니, 누가 봐도 한 마디씩 싫은 소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농사를 지려면 짓고 말려면 말지 저게 뭐여, 저게 밭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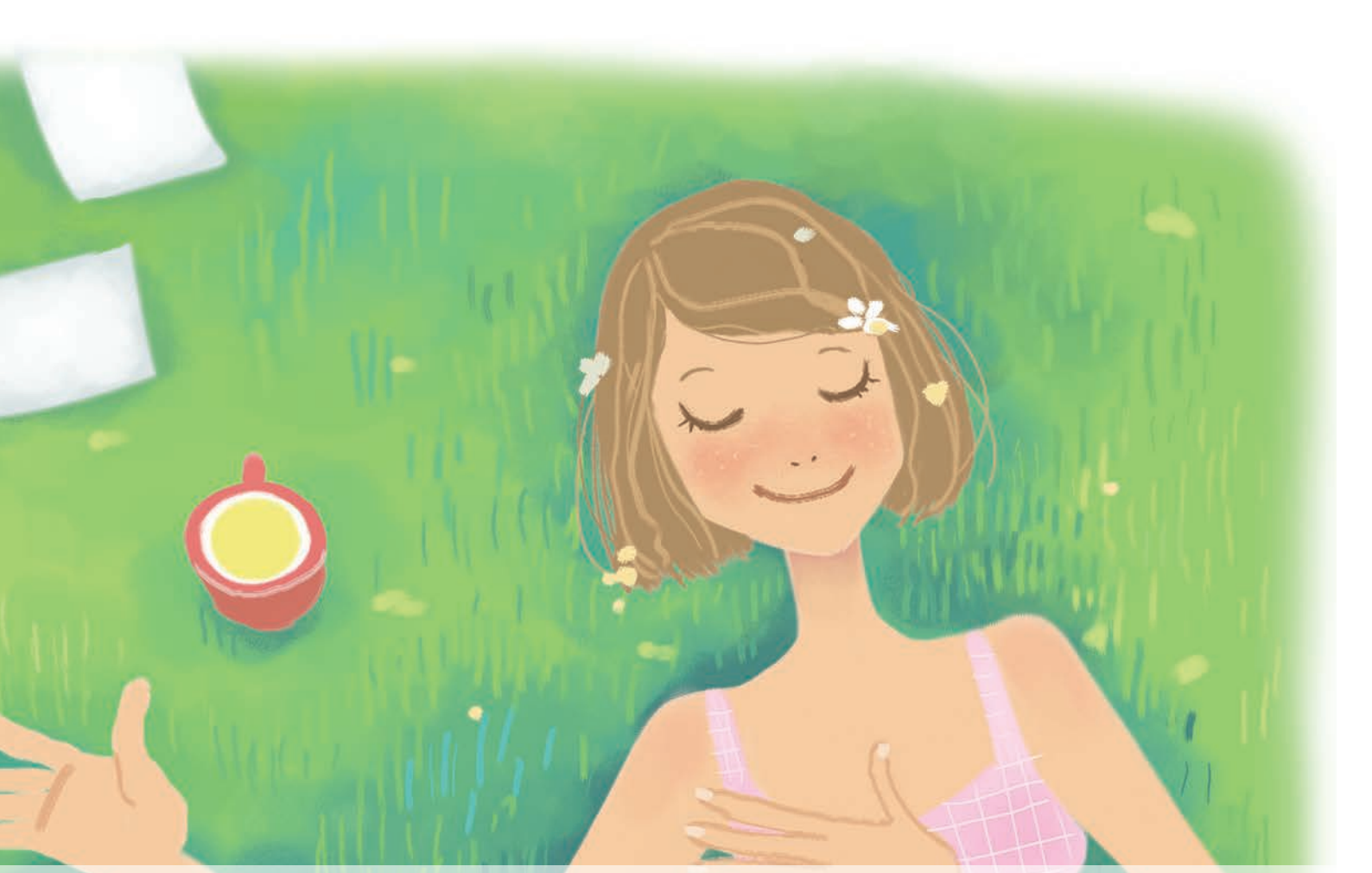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뙤약볕임에도 고구마 밭으로 나간 것이다. 고구마 두럭에서 가장 실하게 자라는 놈은 쇠비름이다. 아직은 한낮의 더위가 아니라 꽃을 활짝 피우고 있지만, 정오가 되기 전에 꽃을 닫을 것이다. 다육식물이라 가뭄에도 여간 잘 자라는 게 아니다.

쇠비름도 시골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풀이다. 여느 풀이 그렇지 않겠는가? 서너 해 전에 시골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쇠비름을 뿌리까지 한 줌 뜯어 오셨다. 뭐에 쓰시려는가 물었더니만, 어찌어찌하면 관절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화분에 심어 키워야겠다고 하신다. 소위 믿거나 말거나 민간요법이다. 그러나 역시 잡초의 근성을 가진 풀이라 그런지 화분에서는 실하게 자라지 못했고, 다른 채소를 심어 먹어야겠기에 이내 뽑아 버렸다. 그런데 그 쇠비름이 고구마 밭에 지천이고, 줄기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나무젓가락 굵기다.

"좀 뜯어다 드려볼까?"

그런 마음도 잠시 땅이 딱딱해서 풀이 잘 뽑히지 않고, 비 온 뒤 잡초를 뽑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너다섯 배는 힘든 것 같다. 그냥, 잡초나 열심히 뽑을 수밖에 없다. 잡초의 종류를 세어본다.

사진으로 다 담지는 못했지만(사진을 찍을 힘도 없고, 겨를도 없어서), 바랭이 종류가 다양하고, 까마중, 여우구슬, 개망초, 사초, 강아지풀, 중대가리풀 등 잡초 천국이다. 애써 심은 것은 저렇게 초라한데 가꾸지



도 않은 잡초들을 이리도 무성하다니….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다. 괭이밥은 뽑혀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이미 씨앗들을 잘 맺고 있어서 그들을 뽑는 순간 씨앗이 우수수 텃밭에 떨어진다. 그냥 둘 수밖에 없다.

땀이 비 오듯 내린다. 오이와 가지를 따 먹어가며 갈증을 달래며 잠시 밭둑에 앉아 쉰다.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아, 시원해!' 소리가 절로 난다. 이 산들바람의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다. 말로 다하지 못해도 땀 흘려본 사람은 작은 산들바람도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나의 텃밭에서 잡초로 분류된 것들은 이 가뭄에도 산들바람을 쐬면서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점심 반찬은 밭에서 딴 가지, 고추, 토종오이와 막된장이다. 고추는 온몸을 자극하면서도 적당히 맛나게 맵고, 지인에게 씨앗을 얻어 심은 토종오이는 꼭지부분의 씁쓰름한 맛이 일품이며, 보랏빛 가지는 부드러운 식감이 그만이다. 얼음물에 찬밥을 말아 후루룩 마시다시피 두 그릇이나 비웠다. 뙤약볕에서 훅 달아올랐던 몸이 시원해진다.

밥을 먹고 나니 꾀가 생겨 아내에게 "이렇게 뙤약볕이면 밭일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는 절대로 안 하는 거야. 더위 먹을 수가 있어." 하며, 나무그늘로 들어간다.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그 산들바람의 시원함을 느낄 자격이 있는 듯해 뿌듯하다.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누워 한숨 자도 게으른 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다. 그 뙤약볕에 가장 예의바른 행동 중 하나가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산들바람을 쐬며 낮잠을 자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다가 한 삼십 분 정도 까마득히 잠이 들었다. 이런 행복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그 행복을 저당잡히면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예 놓아버리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을 피부로 느낀다. 그저 샐러리맨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며 억지로 땀을 흘릴 때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

노동, 육체노동 뒤의 산들바람이 주는 느낌, 땀 흘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참 시원한데, 뭐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7월의 첫날, 고구마 밭은 초라하지만,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땀방울보다도 많은 행복을 주웠다. SCH

우리의 멋과 맛, 전통문화의 새로운 경험

삼청각 SAMCHEONGGAK

글_ 손문선, 〈구루메 빠라디〉 저자　사진_ 홍인근(튜브스튜디오)

꽃잎 띄운 향기로운 국화차를 마시며 해금연주로 쇼팽을 듣고, 이어서 입맛에 착착 맞는 맛깔스러운 한식 코스를 먹는다. 삼청각은 이렇듯 그윽한 분위기 속에 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이기에 외국인 손님을 동반할 때마다 칭송을 받곤 한다.

삼청각의 삼청(三淸)은 산이 맑고 물이 맑고 그래서 사람의 인심도 좋다는 의미다. 이곳은 일화당, 청천당, 천추당, 취한당, 동백헌, 유하정 등 멋과 품격을 갖춘 여섯 개의 별채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가옥 형태의 각 별채에서는 부채춤, 판소리, 권무, 동무, 앙상블 연주 등 명인의 예술과 최고의 한식을 함께 만날 수 있다. 공연은 물론 음식, 테이블의 형태까지 모두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

삼청각은 이렇듯 우리 음식과 공연체험은 물론, 다례, 규방공예, 다양한 전통놀이를 몸소 체험할 수 있기에 외국손님이나 우리 전통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다. 또한 굳이 공연을 보거나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워낙 주변의 경관이 빼어나 슬슬 산책만 해도 운치 있는 곳이다. 주차도 연중 무료이니 부담 없이 삼청각의 멋진 뜨락을 거닐어보길 권한다.

이곳의 주방을 총괄하는 셰프는 먹어서 몸에 이롭고 맛도 좋은 약선 요리를 공부하고 응용하길 즐긴다. 그는 이곳에서 깐깐하기로 소문이 났다. 매일 아침 입찰을 통해 들여온 재료를 일일이 검수하고 좋지 않은 것은 모두 반품시킬 정도로 식재료에 대해 엄격하다. 자체수족관을 갖추고 전복 등의 해산물은 거의 살아 있는 상태로 쓰고 어선 같이 익히는 음식들도 회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신선한 것만 사용한다. 고기는 갈비를 제외하고 모두 한우로 요리한다.

홀에서 먹는 점심 단품메뉴를 제외하고는 거의 코스식으로 나오는 한정식 메뉴가 주를 이룬다. 코스요리 안에서는 제철의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계절감각을 살려낸다. 메뉴도 아주 다채롭다. 일반 런치, 디너 코스 외에도 결혼식, 비즈니스, 상견례, 채식, 기업행사 등 목적에 맞는 메뉴를 맞춤식으로 만들어준다. SCH

이야기가 있는 '금강소나무 숲길'

글 · 사진_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올해의 걷기 테마인 '숲길'의 세 번째 코스는 울진에 있는 금강소나무 숲길이다. 금강소나무는 우수한 목재로 예부터 궁궐을 짓거나 왕실의 장례용 관을 짜는 데 사용하던 매우 고귀한 나무다. 금강소나무 숲길은 옛날 보부상들이 울진에서 해산물이나 소금을 구입하여 봉화나 영주 등 내륙지방에서 판매하고, 그곳에서 담배나 곡물들을 사들여 다시 울진으로 내다팔기 위해 다녔던 십이령길을 코스별로 조성한 곳이다. 현재 1~5구간까지 개발했고, 숲길의 생태 보존을 위해 이 중 1~3구간만을 가이드 동반 전제 하에 인터넷 예약제로 개방하고 있다.

소나기마저 반가운 소나무 숲길

우선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하기에 먼저 구간별 특징을 살펴보기로 했다. 고민 끝에 다른 코스와 마찬가지로 총 7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난이도는 중간 정도인 3구간을 예약했다. 이후 울진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가까운 후포항으로 직행했다. 후포항은 영덕과 함께 대게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서 내일의 장시간 행보를 위한 영양보충에 돌입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출발해 불영계곡에 들어서니 언제 봐도 아름다운 계곡의 풍광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손 잡고 왔던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을 지나니 감회가 참 새로웠다. 구불구불 좁은 시골길을 지나 금강송펜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출석 체크를 한다. 11명이 단체로 온 팀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팀도 보인다.

첫 번째 가이드의 구령에 맞춰 몸 풀기 체조를 했다. 몸을 푸니 기분이 들뜬다. 오늘의 코스로 향해 숲길로 들어서 첫 번째 고개인 저진터재에 올랐다. 올라오는 동안 많은 구슬땀을 흘렸다. 하지만 골짜기 사이로 불어오는 산바람 덕에 기분은 상쾌했다. 화전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가이드는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우리는 곧 두 번째 가이드에게 인계되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산길에 의미와 이야기가 부여된다. 산길 주변의 파인 흔적들은 오소리들의 화장실 겸 쉼터란다. 또한 바닥에 흙이 약간씩 올라온 것은 두더지들의 땅굴길이니 밟지 말란다. 숲속에 마련된 통나무 의자에 앉아 숲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 한잔을 하는데, 난데없이 소나기가 내렸다. 예기치 못한 손님이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넘쳐서인지 소나기마저 반갑기만 하다. 우비를 챙겨 입고 떨어지는 빗방울 반주에 맞춰 콧노래를 불러본다.

도도한 오백 년 금강소나무와 화려한 꽃들의 축제

마을 주민들이 정성들여 만든 점심식사를 시작했다. 점심식사는 산행 시작 전 6,000원만 내면 단체로 제공된다. 산나물, 손두부를 주 재료로 한 맛있는 도시락이다. 나무 그늘 밑에 돌을 식탁 삼아 식사를 시작했다. 시장이 반찬이라 했던가. 맛도 있었지만 소박한 점심 도시락이 진수성찬처럼 느껴진다. 산행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연신 맛있다는 감탄사를 내뱉는다.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들 젓가락질에 바쁘다. 어디선가 하늘소 한 마리가 나타나 비를 피해 우리 식탁에 끼어든다.

세 번째 가이드가 등장했다. 미니 스피커까지 준비한 열정 넘치는 가이드다. 소나무는 암수 동체지만 절대로 근친교배는 하지 않는단다. 또한 산딸나무의 하얀 꽃은 사실 꽃이 아니라 꽃받침이라고 한다. 꽃이 너무 작아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자 가짜 꽃을 피우게 되었단다.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막힘이 없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보호송인 500년 된 소나무를 바라보며 울진 금강소나무의 우수성과 나무 감별법을 재미있게 익혔다. 금강소나무는 줄기가 곧게 뻗고 전체 형태는 좁은 삼각형 모양인 것이 특징이라 한다. 그중에서도 더 잘생긴 소나무들이 모여 있다는 미인송 군락도 보인다.

산길 가에는 형형색색 야생화들이 만개하다. 하얀 까치수영들이 벌과 나비를 반기고, 보랏빛 엉겅퀴와 꿀풀, 노란색 달맞이꽃과 애기똥풀, 개울가의 물봉선과 노루오줌, 이름도 알 수 없는 꽃까지 화려한 꽃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비가 그치고 멀리서 뻐꾸기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뻐꾸기의 환송을 받으며 소나무 숲길 일정을 마감했다.

건강 TIP. 꾸준한 걷기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걷기는 대표적 유산소 운동으로 관절에는 큰 무리가 없고, 심장혈관과 근골격계를 강화해 심장병을 예방한다. 출퇴근 시간에 조금씩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양로원에서 탈출한 할아버지의 여정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글 _ 편집부

단 한 편의 데뷔작으로 전 유럽 서점가를 강타한 작가 요나스 요나손. 1961년 7월 6일 스웨덴 백시에에서 태어난 그는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스웨덴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졸업 후 15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에는 OTW라는 미디어 회사를 설립, 직원 1백 명에 이르는 성공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중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그는 회사를 매각하고 20여 년간 일해온 업계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2007년 스위스 티치노로 이주한 뒤 첫 소설에 감히 도전할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한 그는 오랫동안 구상해 온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집필하게 된다. 세계사의 주요 순간마다 '우연히' 자리하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를 배꼽 잡게 엮어낸 이 비범한 작품은 2009년 처음 출간되어 인구 9백만의 나라 스웨덴에서 1백만 부 이상 팔리는 엄청난 기록을 세운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에서 5백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현재도 판권이 팔린 35개국에서 속속 번역되고 있어 이변이 이어질 전망이다.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베스트셀러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양로원에서 탈출한 100살 할아버지의 여정을 담은 예측불허 코미디다. 알란 칼슨은 100살 생일날 무작정 여행길에 오른다. 양로원 직원들은 생일 케이크에 어렵사리 100개나 되는 양초를 꽂고 알란의 방문을 연다. 하지만 그는 창문 너머로 사라진 뒤였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두 개의 이야기 축을 갖고 있다. 하나는 100살 노인 알란의 여행담으로 그가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고 여러 사람들과 조우하며 기이하고 유쾌한 모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알란의 과거사로 20세기 현대사의 중요 장면들이 등장한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서사는 서로 맞물리며 각자의 스토리를 뚝심 있게 펼쳐나간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길을 떠난 알란은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남자의 여행가방을 떠맡게 된다. 돈다발로 가득 찬 가방 때문에 조폭들이 그의 행적을 좇지만 정작 알란은 돈이 들었는지도 몰랐다. 이 가방은 히치콕 영화의 맥거핀처럼 알란을 둘러싼 추격전을 위해 마련된 플롯 장치일 뿐이다. "물건이나 돈에 주인이 따로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알란은 돈에 욕심이 없지만 가방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지도 없다. 알란은 어린 시절 돌아가신 엄마가 해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답도 없고, 닥칠 일은 닥치고,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인물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부터 찾자." 이런 상식적인 말도 100년 인간사를 경험한 알란이 들려줄 때는 묵직한 격언으로 들린다.

알란의 한평생은 유럽과 미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에는 스페인 내전의 장본인 프랑코, 핵무기 제조를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로버트 오펜하이머,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냉전시기 미국 대통령 레이건 등 역사적 인물이 실명 그대로 등장한다. 알란은 우연히 그들과 조우하고 역사적인 사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프랑스 68혁명, 베를린 장벽 붕괴 등 역사적 순간을 보여주는 이 책은 일종의 대체역 사물이다. 영화 속 알란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본능대로, 가치관대로 행동한 것으로 그려진다. 코미디 특유의 거리감으로 바라본 현대사는 서글프게도 한 편의 소극 같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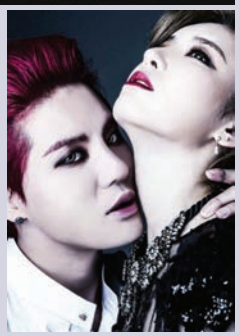
교보문고 2014년 7월 둘째 주 베스트 10

1.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 열린책들)
2. 미 비포 유(조조 모예스 | 살림)
3. 어떤 하루(신준모 | 프롬북스)
4.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 토네이도미디어그룹주식회사)
5.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정여울 | 홍익출판사)
6. 해커스 토익 보카 (데이비드 조 | 해커스어학연구소)
7. 말공부(조윤제 | 흐름출판)
8. 해커스 토익 리딩 (데이비드 조 | 해커스어학연구소)
9. 나만 알고 싶은 유럽 TOP10(정여울 | 홍익출판사)
10. 몽환화(히가시노 게이고 | 비채)

올 여름 더위 식혀줄 뮤지컬 무대 풍성

'캣츠'-'프리실라'-'드라큘라'-'시카고'-'브로드웨이 42번가' 등

한여름 무더위만큼이나 뮤지컬 흥행 싸움이 뜨겁다. 독특한 내용의 호주 뮤지컬 '프리실라'를 비롯해 김준수 류정한의 '드라큘라', 여기에 정통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와 '브로드웨이 42번가'가등이 잇달아 개막한다. '시카고'와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국내에서 10년 넘게 검증받아온 흥행 보증수표이고, '프리실라'와 '드라큘라'는 국내 초연이다.



글 _ 편집부

7월 8일 개막되어 9월 28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될 '프리실라'는 '맘마 미아!' 이후 최고의 쇼라는 호평을 받은 흥행작이다. 1994년 개봉한 영화를 원작으로 2006년 호주 시드니에서 초연돼 대히트한 뒤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에 섰다. 영화를 원작으로 한 무비컬(movical)이자 '맘마 미아!' 처럼 기존 히트곡을 엮어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마돈나의 '라이크 어 버진', 신디 로퍼의 '트루 컬러'를 비롯해 도나 썸머, 티나 터너의 히트곡 등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한 28곡이 객석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다.

- 장소 : LG아트센터, 기간 : 7. 3 ~ 831
- 출연 : 조성하, 고영빈, 김다현, 이지훈, 조권 등
- 요금: VIP석 130,000원, R석 110,000원, S석 80,000원, A석 50,000원
- 할인: BC Loun.G 유료회원 조기예매할인(8/5~8/31 공연) 35% 할인

'드라큘라'는 스코틀랜드의 작가 브램 스토커의 소설이 원작으로 우리에게 '지킬 앤 하이드'로 유명한 프랭크 와일혼이 작곡해 2004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됐다. 전설의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을 중심으로 그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여인 미나, 그리고 드라큘라를 쫓는 뱀파이어 헌터 반 헬싱과의 싸움이 긴장감 넘치게 펼쳐진다. 무엇보다 캐스팅이 눈에 띈다. 드라큘라 백작 역에 흥행 보증수표인 JYJ 김준수와 한국 뮤지컬의 간판배우 류정한이 더블 캐스팅됐다. 7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기간 : 7. 15 ~ 9. 5
- 관람시간: 화~금 8시 / 토, 일, 공휴일 2시, 7시 / 수요일 3시 공연 있음. 월요일 공연 없음
- 출연 : 류정한, 김준수, 조정은, 정선아,양준모, 카이
- 요금: R석 140,000원, S석 120,000원, A석 80,000원, B석 50,000원

브로드웨이의 전설적인 안무가겸 연출가인 밥 포시의 대표작 '시카고'도 8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최정원, 아이비, 성기윤, 이종혁, 전수경, 김경선 등 '시카고'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배우들이 관록의 무대를 꾸민다.

1996년 국내 초연 이후 화려한 탭댄스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브로드웨이 42번가'도 돌아온다.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국내 대표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 박해미, 홍지민 등이 출연한다. 또한 이태원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는 '캣츠'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6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연을 갖는다.

- 장소 : 디큐브아트센터, 기간 : 8. 2 ~ 9. 28
- 관람시간: 화~금 8시, 토 3시 / 7시 30분, 일 2시 / 6시 30분, 월 공연 없음
- 출연 : 최정원, 아이비, 이종혁, 성기윤, 전수경
- 요금: VIP석 120,000원, OP석 10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News + Communication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내과학교실 연수강좌

순천향대의대 내과학교실(주임교수 김용훈) 연수강좌가 6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동은대강당과 CEO강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등의 임상진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연수강좌는 약물 잘 쓰기, 다양성, 임상초음파, 퀴즈, 새로운 진료지침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알려주자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 산학협력단이 아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산시 생활과학교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10년째 위탁 운영 중인 생활과학교실은 매주 1회 체험 위주의 과학실험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한다. 또 매월 1회씩 과학자와의 만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견학, 과학게임 등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면서 입체적인 생활과학교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1학년생 독특한 '공동체수업' 확산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는 자기관리 능력과 자신감 형성, 새로운 습관개발 등을 위해 1학점을 부여하는 '글로벌리더십'이라는 교과과정을 1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했다.

이 강좌는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강의실 내에서는 관광업계의 명사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팀티칭 방식의 수업을, 강의실 밖에서는 기업체 CEO를 만나 새로운 관점에서 상품개발을 모색하는 등 체험과정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정리해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외국인 대학생, 11개국 20명 한국어 연수 지원

순천향대학교는 9월 27일까지 4개월 일정으로 11개국 20명의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를 지원한다.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는 초중급 과정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한국 문화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글로벌연수사업 프로젝트의 하나인 '차세대 한국어 인재양성과정'이다.

순천향대학교 '창업 DNA'를 찾아라

순천향대학교는 6월 3일 오후 교내에서 '창업 DNA를 찾아라'란 주제로 재학생이 참가하는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학생들의 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총 47개 팀과 개인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2014년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 예선전 성격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본선 진출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작업치료학과 3학년 유수빈 학생의 '뇌졸중 환자를 위한 상지재활운동기기'가 대상을 수상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순유회 2014년 봄 정기모임 성황

서울병원 유방센터는 6월 13일 오후 2시부터 동은대강당에서 2014년 순유회 봄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정기모임에서는 '푸르름 아래 도란도란 나눔터'를 주제로 이민혁 센터장과 이지현 외과 교수의 강의, 피부관리 및 스트레칭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2년 동안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유방암 치료 연수를 받고 돌아온 이지현 외과 교수는 유방암 환자의 후기 합병증을 주제로 심혈관계, 통증, 피로 등의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혁 센터장은 '유방암 경험자 & 관리'를 주제로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급격히 증가해 과거에는 암 희생자, 생존자로 불렸지만 요즘은 유방암 경험자라고 불린다"며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도 소방훈련(재난대피) 훈련

서울병원은 6월 27일 오후 3시부터 모자 5층 소아청소년과 의국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화재진압 훈련을 개최했다. 병동의 가상 화재진압 훈련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와 공조하여 신속한 인원의 동원 및 현장 지휘체계를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화재진압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제3회 무수혈외과 심포지엄 및 환우회

서울병원 외과가 개최한 제3회 무수혈외과 심포지엄 및 환우회가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동은대강당에서 열렸다. 그동안 서울병원에서 무수혈 수술을 받은 환자를 비롯해 가족과 지인, 병원 교섭위원 등이 참석해 강의를 경청하고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사회사업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사회사업팀에서는 최근 매체를 통해 아동 관련 학대 및 성범죄 등이 이슈화됨에 따라 5월 27일(화) 직원식당 앞에서 'STOP 아동학대 & LOVE CHILDREN'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 징후 및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 제2호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며,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키르키스스탄 폴리클리니카 312 개소

부천병원의 컨설팅을 받아 키르키스스탄의 외래병원 폴리클리니카 312(Polyclinica 312)가 4월 21일(월)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김형철 부원장, 성형외과 남승민 교수, 국제진료팀 최준환 팀장 등이 초청됐다. 폴리클리니카 312 병원은 기획단계에서 한국의 여러 병원을 견학하던 중 부천병원의 시설과 시스템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컨설팅을 받기로 결정했다. 부천병원에서는 입지분석, 진료과목 선정, 특화진료, 장비, 자금, 인력관리 등 다방면에서 개원 컨설팅을 제공했다. 향후 폴리클리니카 312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를 적극 치료하고 화상상담을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의료 시스템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소식에 맞춰 폴리클리니카 312 병원에 초음파 의료기기를 기증했다.

'순천향 40주년 기념' 장봉도 혜림원 의료봉사 실시

5월 17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장봉도 혜림원에서 '순천향 40주년'을 기념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료봉사에는 안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등 3개 진료과 의료진들을 비롯하여 간호팀, 진단검사의학팀, 영상의학팀, 약제팀, 사회사업팀 소속 교직원 21명이 참여해 장봉도 혜림원 장애인 및 기타 무의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 150건의 진료를 시행했다. 인천시에 소재한 장봉도 혜림원은 지적장애인들의 생활공동체로, 부천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로 10회째 이곳을 찾아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시경 · 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4' 개최

소화기병센터 · 소화기병연구소가 주관하는 '내시경 · 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4'(대회장 문종호 교수, 명예대회장 김부성 명예교수)가 5월 25일(일) 향설대강당 및 소화기병센터에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됐다. 소화기병센터 간호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Hands-on Course에서는 전문가의 술기를 직접 배워보는 기회도 제공됐다. 심포지엄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진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연과 라이브 시연을 진행해 해가 갈수록 많은 의료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5회 연속 '1등급' 획득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4년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97.5점의 우수한 점수를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5회 연속 1등급 평가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 이상 2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 3~5월 진료분 1만 399건을 분석해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서울병원 동정

노현진 신장내과 교수,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선정
2014 한국연구재단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자 지원사업(핵심)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3년간 약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정재 교수, 대한환자혈액관리연구회 창립 학술대회
이정재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환자혈액관리연구회가 5월 10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창립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창립 학술대회에는 다학제적 수혈대체요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송윤섭 교수팀, 배뇨장애 세포치료 연구 결실
송윤섭 비뇨기과 교수팀이 중앙대학교 의학연구소(이홍준, 김승업)와 함께 최근 연구한 논문이 2014년 6월 세포치료의 세계적 권위지인 〈Cell Transplantation〉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송윤섭 교수의 논문 제목은 〈중간엽 줄기세포 방광 내 이식을 이용한 척수손상유발 방광섬유화 호전〉으로 '줄기세포를 흰쥐의 방광에 이식해 척수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광섬유화 및 배뇨곤란을 치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부천병원 동정

박성우 교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2014.6.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도 기초 중견연구자 핵심사업 연구자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진행될 총 연구비 3억 원 수혜.

장선영 교수/ 안과
2014.6.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향후 3년간 진행될 연구비 1억 2,000만 원 수혜.

김호중 교수/ 응급의학과
6.14.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중앙구조 · 구급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신화균 · 허균 교수/ 흉부외과
6.4~8. 인도네시아 Harapan kita national cardiovascular center에서 포스터 발표.

장안수 · 신미용 교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 소아청소년과
6.6~13. 덴마크에서 개최된 유럽알레르기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박재성 교수/ 영상의학과
6.12~14. 네덜란드 European Society of Thoracic Imaging에서 포스터 발표.

목지오 · 정찬희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6.13~17. 미국 당뇨병학회 ADA에서 포스터 발표.

유창범 교수/ 소화기내과
6.19~20. 태국에서 개최된 IRCAD 학회에 좌장으로 참석.

이재용 교수/ 이비인후과
6.22~26.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ISIAN & ERS 2014에서 구연 발표.

임수빈 교수/ 신경외과
6.26~28. 미국에서 개최된 KASS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문종호 교수/ 소화기내과
6.27~28. 일본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췌담도 중재적 내시경 학회에서 구연 발표.

News + Communication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제3회 다문화가정 무료진료 개최

'제3회 다문화가정 무료진료' 행사가 6월 28일(토) 부천시 원미보건소 1층에서 실시됐다. 진료대상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중국동포, 저소득 지역주민 등으로 약 120명에게 250여 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 행사에서는 내분비대사내과의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정형외과, 안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9개 진료과 의료진 및 교직원 68명이 참여했다. 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비롯해 복부초음파, 심전도검사, 자궁암검사 및 물리치료를 선택 실시했다.

러시아 구개열 환아에게 무료수술 후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향설환우후원위원회 및 사회사업팀이 러시아 구개열 환아를 초청해 무료수술을 후원했다. 수술대상은 3세 여아 크롯 알렉산드리아로 6월 30일 입국해 7월 2일 성형외과 김용배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으며, 예쁜 모습으로 건강을 회복해 7월 12일 출국했다. 이번 수술 후원은 경기도 나눔의료사업에서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지원하고 본원에서 수술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2014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

천안병원은 5월 24일 천안 목천읍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는 이문수 병원장과 최미영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병원 경영진과 계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그리고 노동조합 상집간부와 대의원 등 총 134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박상흠 부원장의 '2014년 경영목표' 발표를 시작으로 ▲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의 초청강연, ▲노사대표 4인의 제언 발표, ▲노사 안전물품 전달식, ▲만찬 등의 순서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졌다. 안전물품 전달식에서 노동조합은 병원 측에 교직원용 안전물품을 기증했다.

창상봉합 워크숍 열어

우리병원은 29일 별관 제2강의실에서 인턴과 외과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창상봉합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강의와 실습 순으로 성형외과 김준혁 교수(수련부장)와 남두현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참석한 40여명의 인턴과 간호사들은 먼저 강의를 통해 이론지식을 쌓은 후, 인체조직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해 실습하며 창상봉합술을 익혔다.

'야외 음악회' 열어 입원환자 위로

천안병원은 5월 30일 병원 주차장에서 입원환자들을 위로하는 야외 음악회를 열었다.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음악회는 지역방송사(티브로드 중부방송) 프로그램, '찾아가는 음악회'가 후원했다. 음악회에서는 현악 트리오, 통기타 2인조, 플루티스트 앙상블, 재즈연주팀 등의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으며, 300여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참석해 공연을 즐겼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 '최우수 의료기관' 2연패 쾌거

천안병원이 6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4년도 급성기 뇌졸중 치료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의료기관', '5년 연속 1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년 연속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된 것은 대전충남북지역 종합병원 가운데 천안병원이 유일하다.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201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천안병원은 100점 만점 중 99.91점을 받았다. 전체평균은 90.56점이다. 천안병원은 전문인력 지표 'A등급'을 비롯해,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48시간 이내 항혈전제 투여율 등 총 10개 과정지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역 최고 성적을 거뒀다.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이른둥이 희망파티'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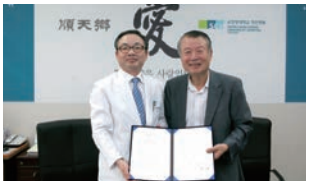
천안병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6월 20일 '이른둥이 희망파티'를 열었다. 이른둥이란 미숙아의 한글 새 이름. 파티는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에서 퇴원한 이른둥이들의 건강 및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파티에는 22명의 이른둥이와 가족들이 참여했으며, 건강강좌, 육아경험 공유, 기념사진 촬영,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마우리찌오 쿠톨로 유럽 류마티스학회장 방문

유럽 류마티스학회 마우리찌오 쿠톨로 회장이 7월 1일 천안병원을 깜짝 방문했다. 이탈리아 제노바의대 교수인 마우리찌오 쿠톨로 회장은 류마티스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특히 전신성 경화증 치료의 권위자다. 이날 이문수 병원장과 병원 현황 등 환담을 나눈 후 외래 등 병원 곳곳을 둘러보고, 천안시내의 모 식당에서 류마티스내과를 비롯해 병원의 여러 진료과 20여명의 교수들과 오찬을 겸한 학술 토론회도 가졌다. 쿠톨로 회장은 환대해준 병원 측과 나 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천안병원 류마티스내과와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류마티스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체조직기증원과 업무 협약 맺어

우리병원은 7월 9일 병원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원(상임이사 전태준)과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병원은 앞으로 기증원과 함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자족 실현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화재예방 훈련이 중요! 전 직원 대피훈련 실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처가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병원은 6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훈련은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한 후 병실 한 곳을 가상 화점으로 하여 화재신고 및 인명대피 훈련, 각종 소방장비를 이용한 화재 진압으로 이뤄졌다.

환경부 '잔반 줄이기 우수사례' 공모전, 영양팀 장려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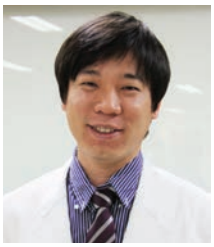
환경부가 실시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구미병원 영양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구미병원은 지난해부터 직원 잔반 줄이기 개선활동을 실시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원 건강을 위한 저염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료지원 서비스, '좋은 이웃들' 기관 협약

구미병원이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를 위한 '좋은 이웃들' 복지지원 서비스에 동참한다. 6월 23일 올림픽기념관 소극장에서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좋은 이웃들' 발대식과 협약식에 참가한 구미병원은 구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안지훈 교수팀, 복부대동맥류 경피적시술(EVAR) 성공

구미병원이 복부대동맥류 환자에게 마취와 절개 없는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에 성공했다. 심장내과 안지훈 교수팀은 62세 남성 환자의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했으며 혈관 손상이나 색전증 없이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구미병원은 2009년 구미 지역 최초로 복부대동맥류 스텐트 삽입술에 성공한 이후 이번 두 번째 시술에서도 성공을 한 것이다. 5년 전 시술은 서혜부 3㎝ 절개와 지혈을 위한 흉부외과적 절개술로 시술을 했으나, 이번에는 스텐트 그래프트를 삽입하는 혈관 내 대동맥류 교정술(EVAR)을 적용해 마취와 절개 없이 시술을 마쳤다.



이비인후과 전영준 교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선정

이비인후과 전영준 교수가 5월 8일 JACI(알레르기 임상면역학회)에 발표한 논문으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소개됐다. 전 교수의 논문은 부비동염에서의 HSD를 연구하여 코의 점막에서도 스테로이드 합성이 이뤄진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관련 약제개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폐소생술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구미병원이 오상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능력을 길러줬다. 6월 11일 응급의학과 이제원 교수와 우정숙 수간호사는 학교를 방문해 애니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천안병원 동정

양광익 교수 / 신경과
제 11회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우수발표상 수상
5.30~6.5 미국 'Sleep 2014'에서 포스터 발표

박형국 교수 / 신경과
5.5~12 프랑스 'ESC 2014'에서 포스터 발표

윤석만 교수 / 신경외과
5.12~14 미국 'Advanced Stroke Programs'에서 구연 발표

최환준 교수 / 성형외과
5.13~16 스페인 'EWMA 2014'에서 포스터 발표

이창호 교수 / 비뇨기과
5.15~23 미국 'AUA Annual Meeting'에서 포스터 발표

이종석 교수 / 피부과
5.22~30 세르비아 'EADV Spring'에서 포스터 발표

양종오 교수 / 신장내과
5.30~6.5 네덜란드 'ERA-EDTA'에서 포스터 발표

김윤숙 교수 / 산부인과
6.3~6 이탈리아 '2014 ECPM'에서 포스터 발표

배상호 교수 / 외과
6.3~9 영국 '2014 ILTS'에서 포스터 발표

전섭 교수 / 산부인과
6.5~8 스페인 'AAGL 2014'에서 포스터 발표

노재휘 교수 / 정형외과
6.16~21 프랑스 'FESSH 2014'에서 포스터 발표

백병준 교수 / 이비인후과
6.20~27 네덜란드 'ERS 2014'에서 연제 발표

7월 신규 교원
마취통증의학과 전혜림 교수

구미병원 동정

전영준 교수 / 이비인후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평가,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선정

이현욱 교수 /심장내과
6.5~8 홍콩 22nd ANNUAL SCIENTIFIC CONGRESS 참석

김명신 교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6.7~12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알레르기학회 참석

황헌규 교수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6.23~27 미국 ISTH 2014 국제혈전지혈학회 참석

최문한 교수 / 소화기내과
6.26~28 일본 동경 T-CAP

김도회 교수 / 심장내과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 2015년 판'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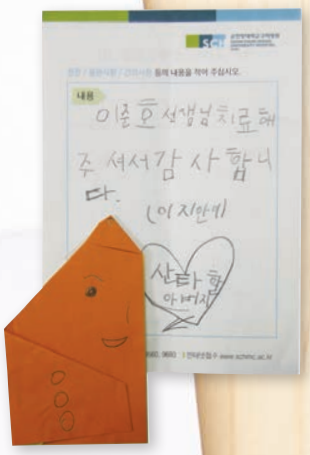
흉부외과 병동 이여진 · 윤미영 간호사 선생님께

지난 6월 4일 저녁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다쳐 병원에 있다면서 빨리 오라는 전화였어요.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아이가 많이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어찌나 마음 아프고 놀랐는지요.

치료를 받고 정신이 든 후에 아이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나타나 간호사라고 밝히면서 출혈이 있는 상처 부위를 황급히 지혈해 주고 병원까지 이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그분들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간호사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여진, 윤미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두 분의 간호사 덕분에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큰 위험을 두 분 덕분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혜진 드림



오성록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들 녀석이 6월 23일 징병검사가 있는데 평소 무릎을 꿇을 때 통증이 잦아 한번 진단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부모 마음에 '군생활을 할 때 혹시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 토요일 친구와의 약속도 미루고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키가 훤칠하고 미남인 오성록 선생님께서 아들 녀석을 진찰해 보더니 "오스굿씨 병이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오스굿 슐라터병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15세의 성장기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하고, 활동성이 강한 남자아이들에게 주로 발병하며, 18세 이전에 대부분 좋아지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병의 종류도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환자에게 친절히 대하고 안심시켜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오성록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원표(부천 상도초등학교 교사)

40th Anniversary
Since 1974

순천향,
인술(仁術)40년
100년을 이어갑니다

하늘뜻 받들어
인간사랑을 실천합니다

순천향의 가치는
생명 존중과 환자의 행복입니다

SCH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한남동 657)
http://www.schmc.ac.kr

서울병원:02)709-9114

부천병원:032)621-5114

천안병원:041)570-2114

구미병원:054)468-9114